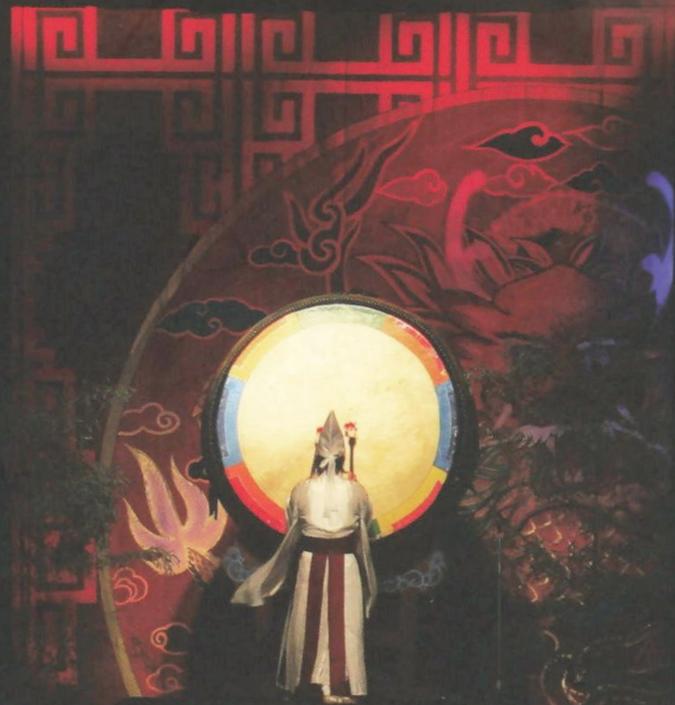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9. 9 Vol. 213



부산시립무용단 백두대간 / 천하태평지무

 부산문화회관  
www.bsculture.busan.kr

#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 부산시민과 함께 지휘자 협연자 오케스트라가 하나되는 역사적인 2009년 가을...

지휘 | 오충근 (고신대 교수)

연주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신포니에타,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연합 120여명으로 구성

협연 | 정명화 (한국예종 교수)

### PROGRAM

번스타인 / 캔디드 서곡  
L.Bernstein / Candide Overture

드보르작 /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A.Dvorak /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 64  
P.Tchaikovsky / Symphony No.5 in E minor op.64



첼로 정명화

Myung-Wha Chung. Cello

2009. 10. 12 Mon. pm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부산신포니에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오충근**  
Choong-Keun Oh. Conductor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KNN** 1577-7600 ([www.knn.co.kr](http://www.knn.co.kr))

 YAMAHA



부산야마하  
피아노/악기  
**전문  
판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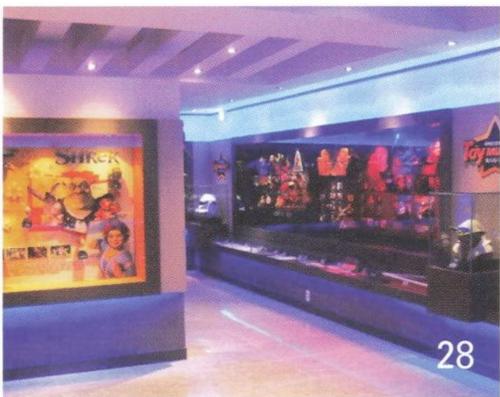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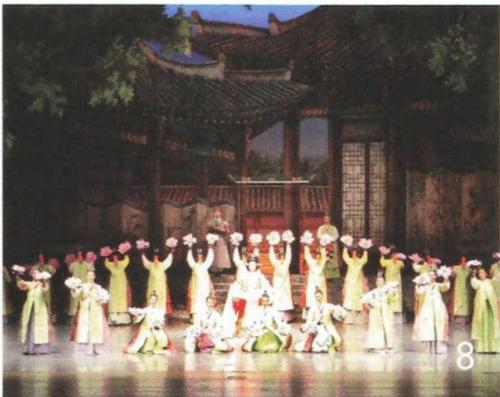


**학교, 교회, 전공자 특별 우대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점	051-863-0900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메가마트 피아노사 동래점(3F)	051-582-0808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피아노사(수영만)	051-743-7785
해운대 야마하 뮤직스쿨	051-741-7744



- 8 커버스토리 \_ 2009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행사 풍성
- 10 프리뷰
- 14 반갑습니다 \_ 부산문화회관 신임관장 최성달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향수의 제왕 '켈른의 물' · 김지혜
- 20 행복한 오페라 여행 \_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 김홍승
- 22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_ 영화에서 되살아난 그림, 에드워드 호퍼 · 채경혜
- 24 불멸의 거장, 말러 \_ 빈 세기말 예술가들의 뮤즈이자 '영원한 여성' 알마 말러-베르펠 · 김문경
- 25 황윤기의 월드뮤직 여행 \_ 멕시코 I '마리아치(Mariachi)' · 황윤기
- 26 리뷰 \_ 재독 코리안심포니, 아이레네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합동공연 · 김창욱  
엄마를 잃어버린 시대의 슬픔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 황선열
- 28 그곳에 가면 \_ 보고 만지고 느끼며 즐기는 신나는 장난감의 세계  
세계 장난감 체험관 '토이뮤지엄'
- 30 프로그램 가이드
- 49 우리는 문화가족 \_ 오카리나양상블 오카마루
- 50 나의 애청음반 \_ Vladimir Horowitz In London · 김중옥
- 51 새로 나온 책
- 52 부산문화회관 소식
- 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5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59 100자 토크



### 2009. 9 Vol.213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3109

발행인 최성달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9년 8월 25일

인쇄처 한글그래픽스 TEL. 051-632-7842 FAX. 051-639-0305

#### 표지설명

2009년 부산과 후쿠오카 행정교류협정 20주년을 기념한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식에 참가하는 부산시립무용단.

# 2009. 9 SEPTEMBER

## 부산문화회관

### 공연안내

Sunday 일요일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 국제회의장

- ▶ **부산문화회관 제 3기 문화대학**  
9월 2일(수) 오후 2:00 강사 김동규  
9월 9일(수) 오후 2:00 강사 황의중  
9월 16일(수) 오후 2:00 강사 도용복  
9월 23일(수) 오후 2:00 강사 채경혜  
9월 30일(수) 오후 2:00 강사 문화속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 전시실

- ▶ **부산청년서예인협회 회원전 - 대전시실**  
9월 3일(목)~9월 6일(일)  
문의:김도영(517-8068, 010-4533-2233)
- ▶ **2009 부산국제현대미술전 - 중전시실**  
9월 4일(금)~9월 7일(월)  
문의:손성일(010-3832-8727)
- ▶ **제 19회 국제 서화예술전 - 대전시실**  
9월 7일(월)~9월 11일(금)  
문의:김종곤(702-2250, 010-4448-9553)
- ▶ **성파 옷 염색 발표전 - 중전시실**  
9월 9일(수)~9월 14일(월)  
문의:문성래(055-382-7094, 010-3588-2619)
- ▶ **부산여성서화작가회 '창작과 임서의 어울림' - 대전시실**  
9월 12일(토)~9월 15일(화)  
문의:오수련(808-0569, 011-866-0023)
- ▶ **부경대학교 디자인학부 제 21회 졸업작품전 - 중전시실**  
9월 19일(토)~9월 24일(목)  
문의:양원석(010-9399-8405)
- ▶ **부산예술제 2009 '2009 부산미술의 젊은시각전' - 대전시실**  
9월 21일(월)~9월 26일(토)  
· 개막식:9월 21일(월) 오후 5:30  
문의:부산미술협회(632-2400)
- ▶ **제 3회 한서미술대전 - 대 · 중전시실**  
9월 28일(월)~10월 1일(목)  
문의:한서미술협회(811-1238, 010-2582-4201)

01

대 | BN 그룹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KNN(1577-7600)

중 | 고신의대 관현악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이재민(010-8548-5562)

06

중 | 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 제 5회 정기연주회 18:00  
무료/장은정(017-842-6688)

소 | 김현정 피아노독주회 17:00  
초대/김현정(010-3355-7577)

13

대 | 2010년 부산세계음악제를 위한 Prè음악회 부산음악협회 Piano Grand Festival '협주곡의 밤' 19:00  
2만원 · 1만원/부산음악협회(634-1295)

중 | 제 10회 김정희 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 17:30  
초대/김정희(628-4206, 010-4552-4106)

20

대 | 제 79회 부산, 영남 무용예술제 09:00  
정성철(011-284-8880)

중 | 부산색소폰콰이어 제 4회 정기연주회 18:30  
무료/이천우(010-2767-2141)

27

대 | 제 19회 알로이시오관현악단 자선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부산소년의 집(256-3901)

중 | 부산예술제 2009 '실버가요제' 15:00  
무료/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631-1377)

07

대 | 동서대학교 뮤지컬과 학과창설 10주년 기념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30  
무료/DS뮤지컬컴퍼니(320-1910, 323-3244)

중 | 김성희 피아노 리사이틀 - For Romantic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4

대 | 2010년 부산세계음악제를 위한 Prè음악회 부산음악협회 Piano Grand Festival '피아노로 듣는 심포니' 19:00  
2만원 · 1만원/부산음악협회(634-1295)

중 | 부산버سم새예술단 '사물놀이와 전통춤' 19:30  
1만 5천원 · 1만원  
부산버سم새예술단(751-3100, 016-9858-2233)

21

중 | 제 21회 작곡모임 향천회 작품발표회 19:30  
초대/백승태(010-4154-1403)

28

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한국전력과 함께 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 19:30  
무료/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031-392-6419)

중 | 향신회 창립 35주년 기념음악회 '창작합창의 밤' 19:30  
균일 5천원  
유미숙(011-488-6467), 이규봉(016-337-6892)

29

중 | 제 21회 작곡모임 향천회 작품발표회 19:30  
초대/백승태(010-4154-1403)

08

중 | 제 21회 작곡모임 향천회 작품발표회 19:30  
초대/백승태(010-4154-1403)

15

대 | 한낮의 U:콘서트 '가을속의 아리아' 11:00  
균일 1만5천원/국제신문(500-5222)

중 | 광남 유나이티드오케스트라 제 3회 정기연주회 19:00  
균일 1만원/윤강수(010-4555-1470)

22

중 | 제 21회 작곡모임 향천회 작품발표회 19:30  
초대/백승태(010-4154-1403)

29

중 | 제 21회 작곡모임 향천회 작품발표회 19:30  
초대/백승태(010-4154-1403)

29

중 | 제 21회 작곡모임 향천회 작품발표회 19:30  
초대/백승태(010-4154-1403)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607-3100)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02**  
 대 | 2009 푸르덴셜생명 아름다운 음악회  
 - 리처드 용재 오닐 & 김지연  
 'Love on the Strings' 19:30  
 7만원 · 2만5천원 · 1만원  
 크레디아(02-747-3886~7)

**03**  
 중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대바람소리'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04**  
 소 | UCDC 정기연주회 18:00  
 무료/UCDC(010-4335-1999)

**05**  
 소 |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09**  
 소 | 울산 피아노 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19:30  
 초대/울산피아노소사이어티(010-9092-9126)

**10**  
 대 | 제 11회 부산 119 소방동요대회 14:00  
 무료/부산소방본부(760-3073)  
 중 | 창작합창 21 2009 정기발표회  
 '부산을 노래하다' 19:30  
 무료/동덕대학교 음악과(890-1318)

**11**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2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중 | 풍류전통예술원 10주년 기념공연 19:30  
 균일 1만원/박종환(010-2781-3888)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이한철 월드투어 Vol.8...순간의 기록 부산편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2**  
 중 | 제 23회 부산청소년 합창제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  
 소 | 토요상설무대 '탱고춤이 있는 앙상블 뮤젠'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6**  
 중 | 테너 조윤환 귀국 독창회 19:30  
 균일 2만원/퀸스틀러(02-584-5090)

**17**  
 중 | 독우회 제 39회 정기연주회  
 -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소 | 소프라노 이은희 독창회 19:30  
 초대/이은희(010-4576-5945)

**18**  
 대 | 2010년 부산세계음악제를 위한 Prè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후쿠오카 교류음  
 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00  
 2만원 · 1만원/부산음악협회(634-1295)  
 소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연 18:00  
 부산문화회관(607-6045)

**19**  
 중 | 부산예술제 2009 '여니춤 축제' 16:00  
 무료/부산무용협회(632-5116)  
 소 |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앙상블  
 디 마레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23**  
 중 | 부산예술제 2009 무용극 '허황후'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부산무용협회(632-5116, 010-5755-8574)  
 중 | 부산예술제 2009 부산자매도시 전통음악회  
 19:00  
 2만원 · 1만원/부산국악협회(644-5211)

**24**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5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중 |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독창회 19:30  
 초대/김정화(017-507-4752)

**25**  
 대 | 제 4회 대한민국 교사합창제 16:00  
 무료/이성환(010-7294-5088)  
 중 | 소프라노 박수진 귀국 독창회 19:00  
 균일 1만원/에스엠기획(442-6500)  
 소 | 부산예술제 2009 전국백일장 14:00  
 부산문인협회(632-5888)

**26**  
 대 | 총체극 '가야여왕 허황옥' 19:00  
 2만원 · 1만원  
 김해여성복지회(055-339-1900, 010-2865-7221)  
 중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3회 정기연주회  
 '브람스&드보르작'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3111~4)  
 소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연 15:00  
 부산문화회관(607-6045)

**10/1**  
 중 | 테너 광성섭 독창회 19:30  
 균일 3만원/광성섭(010-2655-6105)

**10/2**

**10/3**



# 2009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행사 풍성

## 한류 문화로 꽃피운다

2009년은 부산과 후쿠오카시가 행정교류 협정을 맺은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9년을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로 정하고 부산과 후쿠오카 양 도시에서 다양한 교류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인구 144만에 이르는 후쿠오카시는 일본 규슈지방 북부에 위치한 규슈의 경제중심도시이다. 부산과 후쿠오카는 불과 200Km 떨어져 있어 선사시대부터 교류가 활발했다. 1989년 행정협정을 맺기 이전부터 후쿠오카시는 부산과 가장 가까운 국제도시로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가져왔고 1990년대 부산과 후쿠오카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시킨 비틀호가 운항되면서 부산과 후쿠오카는 양 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우정을 쌓아왔다.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가 지정되기까지는 2006년 9월 부산-후쿠오카시의 각계 지식인들로 구



성된 부산-후쿠오카 포럼의 영향이 컸다.

‘우정의 해’를 맞아 지난 2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양 도시의 시장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의 해’를 알리는 기념식을 가진 이래 200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부산과 후쿠오카시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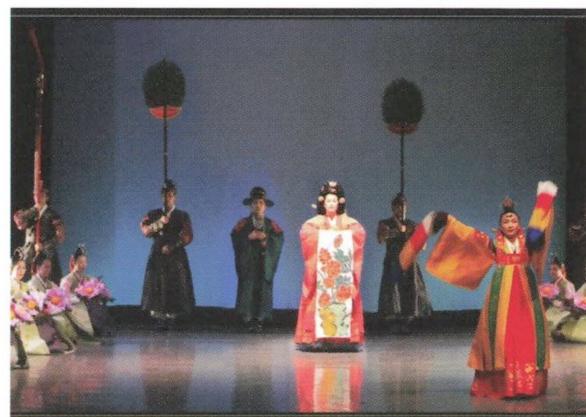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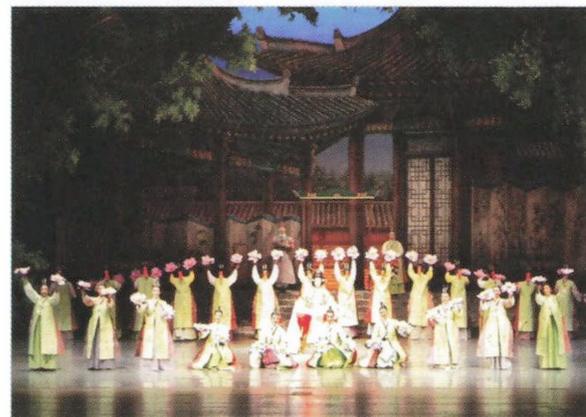
9월에는 후쿠오카시에서 ‘우정의 해’ 기념식이 성대하게 펼쳐진다. 9월 18일과 19일에는 부산-후쿠오카 포럼과 함께 후쿠오카 마린멧세에 부산 홍보관을 설치, 부산광역시 관광 프로모션,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 전시와 부산의 음식, 부산의 유명요리 시식, 조선시대 의상 체험존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식을 위해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부산의 주요 기관장들이 참가하고 부산시립무용단이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를 기념한 문화사절단으로 후쿠오카 공연길에 오른다. 부산시립무용단은 19일 마린멧세에서 열리는 조선통신사 우정의 밤(한·일 문화교류 공연)과 20일 마린멧세에서 열리는 친서교환식과 우정의 해 기념식, 21일 고후쿠마치에서 캐널시티까지 이어지는 조선통신사 퍼레이드에 참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무용단으로서 우리 춤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은 국내는 물론 해외무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백두대간’과 ‘천하태평지무’를 선보인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온 국토를 두들겨 일깨우는 땅의 울림, 북의 울림을 역동적인 북가락과 신명난 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다양한 북가락과 부포놀이, 상모놀이, 태평소 연주 등 역동적인 춤이 한 민족의 기백과 웅지를 드러낸다. ‘천하태평지무’는 전통적인 궁중무용의 미학을 최대한 살린 작품으로 다채롭고 화려한 춤사위를 그리며 이 시대의 천하태평을 기원하는 작품이다.

9월 18일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기념식 행사와 같은 시기 부산에서는 우정의 해를 기념해 ‘부산예술제 2009’ 개막행사인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시작으로 24일 일본 후쿠오카의 전통음악예술인과 함께 하는 국악협회의 ‘부산자매도시 전통음악회’, 26일과 27일 양일간 후쿠오카 연극배우 조다끼 마사히로, 켄카이 스바키, 츠보우치 신지가 함께 공연하는 연극협회의 부산, 후쿠오카 문화교류 ‘흥가에 별들여라’ 등 다양한 행사가 부산전역에서 펼쳐진다.

우정의 해를 기념해 지난 8월 1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는 부산의 롯데지언츠와 일본 후쿠오카의 소프트뱅크 호크스 프로야구 구단간 친선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대바람 소리

●9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이상규

대금 어경준

해금 김성아

지난 8월 '한여름밤의 콘서트'로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9월 3일 특별연주회 '대바람 소리'를 통해 멋과 흥이 깃든 우리음악으로 초가을의 서정을 들려준다.

국악관현악계의 거목 지휘자 이상규가 객원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부수석 김용우와 경기도립국악단 상임단원인 대금주자 어경준,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해금주자 김성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가 협연자로 출연해 음악회 표제곡인 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 객원지휘를 맡은 지휘자 이상규는 그동안 80여 곡에 이르는 창작관현악곡을 발표하고 무용음악과 연극음악, TV 음악 등 실용음악에까지 음악의 영역을 넓히는 등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대한민국 작곡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상규는 국립국악원 지휘자, KBS국악관현악단 초대 상임지휘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대전연정시립국악원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다.

1부에서는 첫 곡으로 가을의 상념과 추억을 경쾌한 리듬의 선율로 그려낸 백규진 곡 '가을의 기억'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의 구음으로 들려주며, 이어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인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을 테마로 우리음악의 흥을 풀어

낸 백성기 곡 '남도아리랑'을 들려준다.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해탈한 장자풍의 정취를 노래한 신석정 시인의 동명의 시를 음악으로 표현한 이상규 곡 '대바람 소리'를 연주한다. 느린 속도로 시작되는 현과 대금의 깨끗한 가락, 관현악의 섬세하면서도 장중한 선율로 시정의 세계를 표현하는 '대바람 소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30호 가곡 이수자, 제 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로 우리음악의 맥을 잇고 있는 대금주자 어경준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2부 첫 곡으로는 오혁 곡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협주곡 '코-사무이'를 동해안별신굿 태평소 이수자이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부수석인 김용우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태국어로 깨끗한 섬을 뜻하는 '코-사무이'는 현대인의 이상에 대한 염원을 그린 작품이다.

민요의 소박함에 놀이적 신명을 더한 이상규 곡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환상곡'에 이어 마지막 곡으로 한민족 정신의 '향(香)', 그 흥과 신명이 묻어나는 박범훈 곡 해금협주곡 '향(香)'을 부산초연으로 연주한다. 원래 이 곡은 중국의 악기인 이호를 위한 협주곡이었으나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06년 KBS국악관현악단과 초연무대를 가졌던 해금주자 김성아의 해금 협연으로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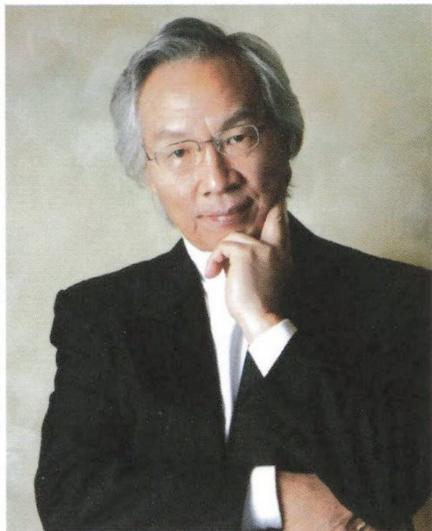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의**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2회 정기연주회

##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II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콕승



바이올린 신상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하반기 첫 무대는 2009년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맞은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 멘델스존 탄생 기념음악회로 출발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지낸 콕승과 악장을 지낸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이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한 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엄격한 지휘자로 정평이 나 있는 콕승은 매네스음대 수석 졸업 후 뉴욕의 아메리칸 발레단 지휘자로 데뷔, 뉴욕 시티센터 조프리 발레단 지휘자(1970-1977), 뉴욕 에글레프스키 발레단 지휘자(1975-1977), 애틀랜타 심포니 부지휘자(1977-1980, 상임지휘자 로버트 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1980-1983), 오스틴 심포니 상임지휘자(1982-1996), 오리건 선리버 뮤직 페스티벌(1983-1993) 예술감독을 지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1996-2003),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고문 및 음악감독(2002-2003), KBS 교향악단 수석 객원 지휘자(2004-2006) 등을 역임했고, 2008년부터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멘델스존이 17세에 작곡한 '한여름 밤의 꿈' 서곡 작품 21과 베토벤, 브람스의 바이올린협주곡과 더불어 세계

3대 바이올린협주곡으로 꼽히는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종교개혁 300주년 축제를 기념해 작곡된 교향곡 제 5번 라장조 '종교개혁' 작품 107을 들려준다. 13곡의 극음악으로 구성된 '한여름밤의 꿈'은 오늘날에는 서곡, 스케르초, 간주곡, 녹턴, 결혼 행진곡 등 5곡만을 묶어 '한여름밤의 꿈'으로 자주 상연되고 있다. 목관의 화음에 의해 몽환적으로 시작되는 이 서곡은 요정의 희롱을 연상케 하는 섬세하고 경쾌한 주제가 현에 의해 제시되며 도입의 몽환 속에 끝이 난다.

멘델스존의 전 작품 중에서도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바이올린협주곡 작품 64는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기교, 멘델스존 특유의 품위 있는 낭만적 정서와 균형 잡힌 고전적인 형식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1832년 11월 멘델스존의 지휘로 베를린에서 초연된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란 표제에 걸맞게 1악장에는 19세기 초부터 독일 교회에서 불려진 찬송가 드레스덴 아멘 구절, 4악장에는 마틴 루터의 '아인 페스테 부르크 이스트 운저 고트(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강한 성은 우리의 하나님)' 등 찬송가구절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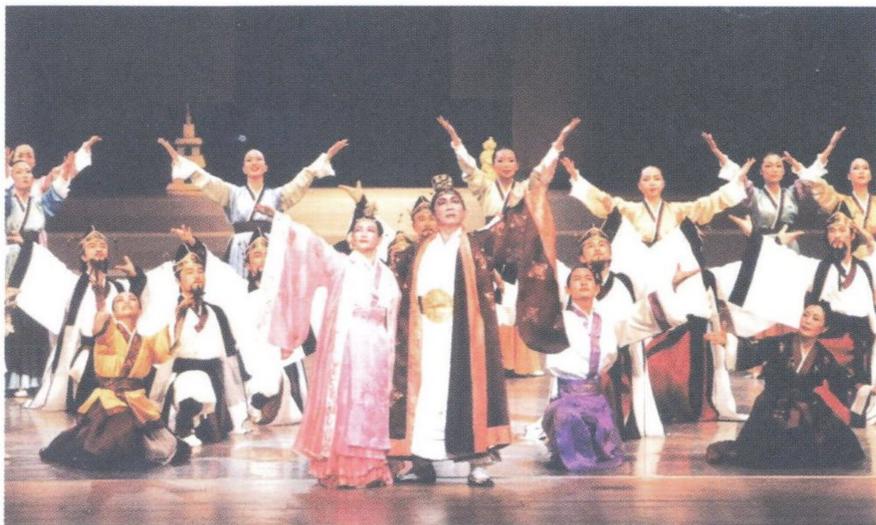
세계적인 명문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전학년 장학생으로 공부하면서 명인 조셉 긴골드와 폴 비스를 사사한 협연자 신상준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을 거쳐 현재 UKO(United Korean Orchestra) 악장,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 Unison String Quartet 리더, Pro Musica Chamber Society 감독 및 인제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예술제 2009

● 9월 18일(금)-27일(일) ●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전시실, 시민회관 소극장, 전시실



부산무용협회 무용극 '허황후'

부산 유일의 종합예술제 2009 부산예술제가 9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부산광역시와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이하 부산예총)가 공동주최하는 부산예술제는 건축가,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작가, 연극, 연예, 영화인, 음악협회 등 부산예총 소속 10개 정회원 단체와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 부산꽃예술작가협회 등 2개의 준회원단체가 참여하는 종합예술 페스티벌이다.

특히 이번 2009 부산예술제는 '자매도시와 함께하는 국제교류 예술제'라는 주제로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후쿠오카 예술인들이 초대되어 함께 무대에 선다. 9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음악협회의 '가곡과 아리아의 밤'은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악가들이 후쿠오카의 성악인들과 앙상블 무대를 펼친다. 부산대학교 박성완 교수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소프라노 요시다 유키, 바리톤 쿠세 야스토시가 특별출연한다. 9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국악협회의 '부산자매도시 전통음악회'에서는 후쿠오카의 전통음악 예술인을 초청, 우리국악과 함께 일본전통음악을 들려준다.

또, 연극협회가 마련하는 연극 '흥가에 별들어라'에는 부산의 연극배우 고인범, 허종오, 심미란, 김우진과 함께 후쿠오카에서 활

동하는 연극배우 조다끼 마사히로, 켄카이 스바키, 츠보우치 신지가 무대에 선다. 공연은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후쿠오카 연극인들과의 합동공연에 앞서 9월 22일부터 사흘간 시민회관 소극장에서는 부산 연극인들이 출연하는 창작 초연극 '엘리스'가, 9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 문화축전에서 국악과 무용이 어우러지는 대형창무극으로 선보였던 '허황후'를 무용극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무용협회의 '허황후'가 펼쳐진다.

이밖에 활발한 예술활동으로 부산의 예술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에게는 부산예술상을 시상한다.

### 행사일정

개막식 및 가곡과 아리아의 밤-교류음악회 \_ 9월 18일(금) 19: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회원전 \_ 9월 18일(금)-22일(화)  
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2009 여니춤 축제 \_ 9월 19(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한·일 차문화교류전 \_ 9월 19일(토) 부산시장관사

부산영상제 \_ 9월 20일(일) 시민회관 소극장

전국백일장 \_ 9월 20일(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한·일 미술교류전 \_ 9월 21일(월)-27일(일) 부산문화회관 대전전시실

창작극 '엘리스(ELLIS)' \_ 9월 22일(화)-24일(목) 시민회관 소극장

무용극 '허황후' \_ 9월 24일(목)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자매도시 전통음악회 \_ 9월 24일(목)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건축도시사진 공모전 작품전시회 \_ 9월 24일(목)-26일(토)

시민회관 1층 전시실

부산-후쿠오카 문화교류 연극 '흥가에 별들어라' \_ 9월 26일(토)-27일(일)

시민회관 소극장

한·일 꽃문화교류전 \_ 9월 24일(목)-26일(토) 시민회관 2층 전시실

실버가요제 \_ 9월 27일(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문 의 \_ 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 관객을 압도하는 열정의 카르멘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독창회

● 9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관객을 압도하는 연기력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카르멘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김정화가 9월 25일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2007년 지휘자 금난새가 그의 저서 '마에스트로 금난새 열정과 도전'에서 '내가 아는 최고의 프로페셔널 한 정신으로 무장한 메조소프라노'라고 격찬한 김정화는 부산아시

안게임 경축음악회와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도 친숙하다. 김정화는 1995년 지휘자 금난새에게 발탁된 이후 뛰어난 음악성과 연기력, 관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우리나라 정상급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해왔다.

메조소프라노 김정화는 경북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베스까라 'Luisa D'annunzio' 국립음악원을 최고점으로 졸업하고 이태리 로마 A.I.D.M 아카데미에서 명예 디플로마를 수여받았다. 이태리 로마 주재 루마니아 문화원 초청 Craiov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를 비롯해 국제 Inner Wheel 협회 초청 음악회와 이태리 로마 주재 세계 대사 부인회 초청 음악회 등 이태리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1994년 귀국 후 첫 데뷔 오페라인 '박쥐(Die Fledermaus)'의 오를로프스키(Orlofsky)역을 맡아 국내 음악계에 화제를 모은 김정화는 당시 연출을 맡았던 세계 5대 연출가 중 한사람인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의 헤르츨(Herzl) 감독으로부터 "40년 오페라 연출 생활 중 최고의 오를로프스키(Orlofsky)를 비로소 찾았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김정화는 오페라 무대에서 빛이 났다. 예술의 전당이 주최한 제 1회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 '리골레토'를 비롯해 '카르멘' '삼손과 데릴라' '돈 카를로' '아이다' '나비부인' '마적' '헨젤과 그레텔' '마르타' 등의 오페라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했다.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청주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코리언 심포니, 유라시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러시아 키에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슬로바키아 국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유명오케스트라와 협연,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2008년 8월 이태리 독창회와 금난새가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LA 순회 연주를 가진 김정화는 현재 계명문화대학 생활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카를라티와 토스티, 구노, 프랑크의 곡과 함께 비제의 카르멘 중 '하바네라' '세기디야' '집시의 노래'를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들려준다.



- ▶ 관람료 \_ 초대
- ▶ 문 의 \_ 김정화(017-507-4752)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 조성**

## 부산문화회관 신임관장 **최성달**



“21세기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성 회복과 자연 친화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문화와 예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문화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7일 부산문화회관 제 15대 관장으로 취임한 최성달

“부산문화회관은 예술인들에게는 무한한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  
시민들에게는 꿈과 낭만이 있는 친근한 문화 휴식공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신임관장. 부산문화의 본당인 부산문화회관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최성달 관장은 부임 후 어느 해 보다 바쁜 여름을 보냈다.

부산을 대표하는 7개 부산시립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은 물론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부산시민들의 문화 휴식공간인 만큼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다.

더욱이 지난해 개관 20주년을 보내고 2009년 새로운 20년을 시작한 부산문화회관이 미래를 겨냥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명실상무한 부산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신임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최성달 관장은 부산광역시 직원들 중에서 업무 추진력은 물론 직원들과의 친화력이 탁월해 인기가 높다. 1999년 부산시민회관 운영계장으로 근무하기도 한 최성달 관장은 부산의 문화 예술인들과도 친숙한 편이다. 평소 최성달 관장을 아는 지인들은 벌써부터 특유의 친화력으로 새롭게 변모해 나갈 부산문화회관을 그려보기도 한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들에게 꿈과 낭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연장의 성격은 시민회관과 다르지만 하드웨어 부분인 시설 관리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건립된 지 20년이 넘어 낡은 시설은 부산의 문화 예술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 보수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극장 리모델링을 비롯한 노후 시설의 개, 보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설 면에서 문화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 맞는 문화의 전당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이다.

하드웨어 격인 시설관리 외에 최성달 관장은 부산시립예술단 운영 부분에도 고민이 많다.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립예술단과 문화 예술관계자와 많은 대화를 통해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해나가면서 조직에 변화를 준다는 생각이다. 부산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과 함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술단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는 부산문화회관이 지역 예술인들의 무한한 끼를 발휘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 휴식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중추기관으로 만드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달 관장은 부산시민회관 근무시절 3년간의 대관 실적을 분석하여 수요일에 행사가 많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수요영화제를 구상, 시민들에게 영화보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당시 최고의 화제를 모은 영화 ‘쉬리’를 비롯한 걸작영화들을 부산 시민회관에서 상영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나라들은 대개가 선진국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습니다. 시민회관에 근무했던 10년 전과 달리 부산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화 예술 인프라가 더욱 확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 친구를 둔 덕에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최성달관장은 누구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무한한 즐거움이 있는 문화 예술 장르의 매력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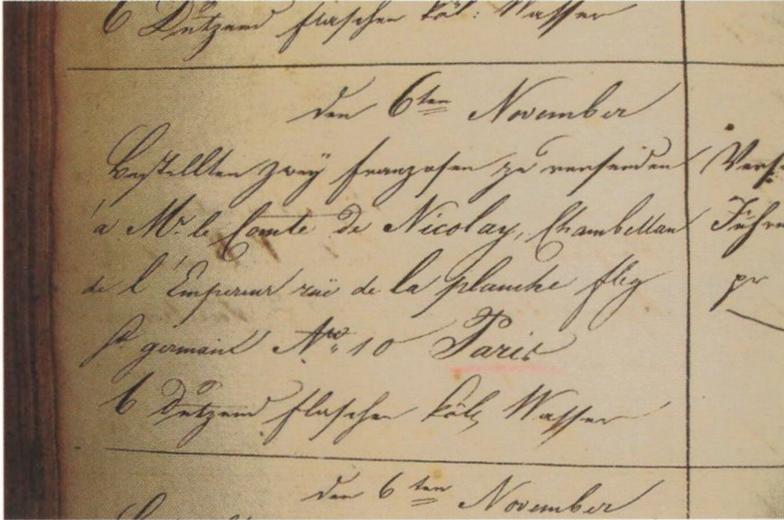
1978년 부산시 동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최성달 관장은 그동안 부산시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담당관 등 시 주요 요직을 거치며 부산 사랑을 실천해왔다. (글, 사진/백경옥)



세계 최초의 향수 제조자  
요한 마리나 파리나

# 향수의 제왕 쾰른의 물

김 지 혜 \_ 독일통신원(독일 포츠담대학교 음악교육학과 박사과정)



1811년 나폴레옹이 주문한 고객장부

“나는 새로운 향수를 만들었다. 그것은 비가 온 후의 이탈리아의 아침과 야생 나르시스, 그리고 오렌지 꽃을 연상케 만든다. 또한 나의 감각과 환상력을 강렬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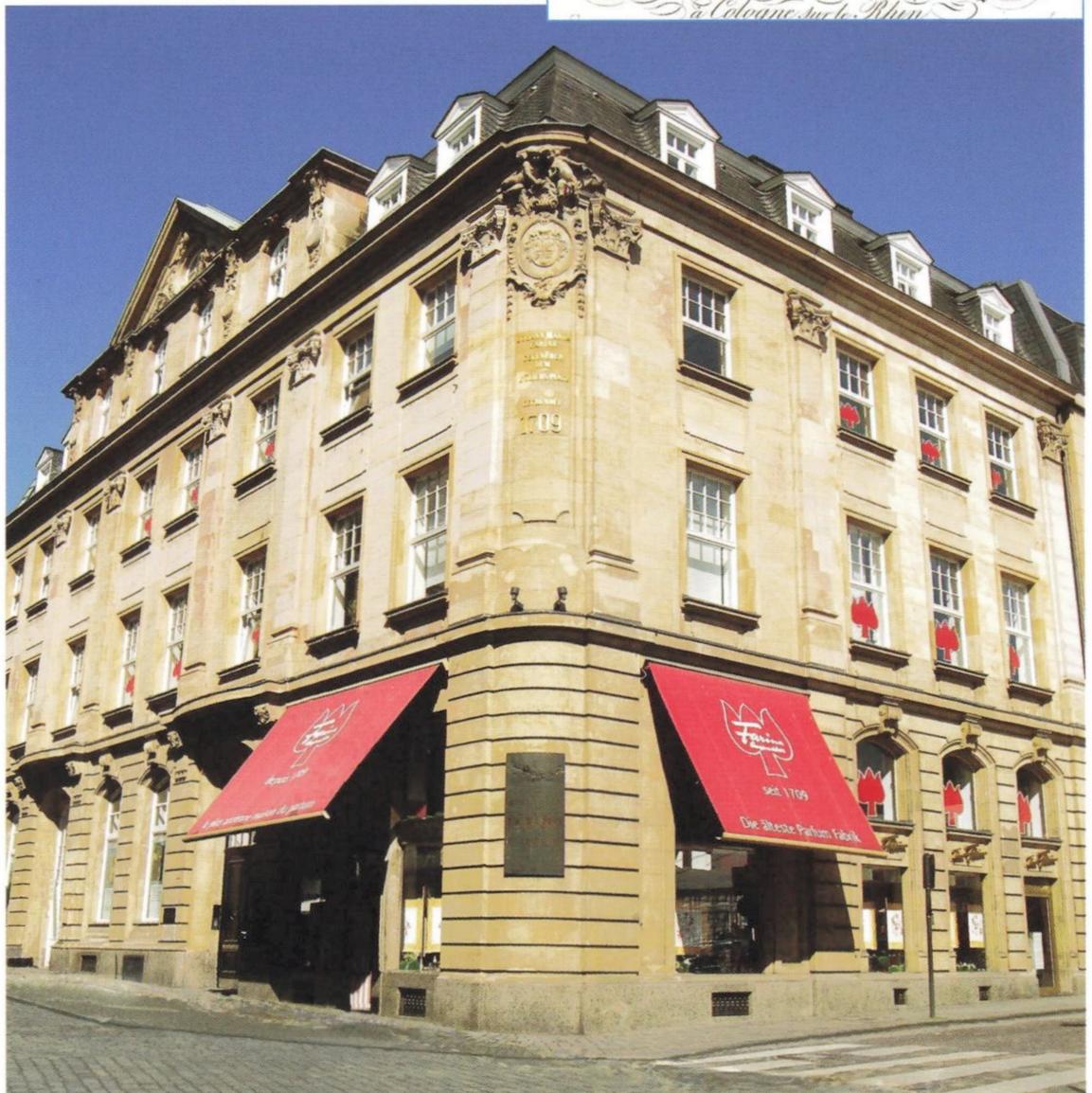
이것은 세계 최초의 향수 제조자 요한 마리아 파리나(Johann Maria Farina)가 1708년 형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탄생시킨 향수에 대해 묘사한 것이다. 이탈리아 출신인 요한 마리아 파리나는 고향인 이탈리아와 제 2의 고향 쾰른을 기리면서 그의 향수를 ‘오 드 콜로뉴’(Eau de Cologne · 쾰른의 물)이라고 이름 붙였다. 1709년 7월 13일 공식 창업을 한 이후 지금까지 8대째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300세 생일을 맞이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수 제조회사로 기록되고 있다.

### 과거로의 향기 여행

18세기의 쾰른 거리는 마구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 배설물로 지독한 악취가 진동을 했고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요한 마리아 파리나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의 주인공처럼 타고난 후각으로 모든 냄새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는데 이 재능을 이용해 ‘향기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23세의 이탈리아 청년은 세상을 도취시킬 불멸의 향기를 찾고자 세계 곳곳을 여행했고 결국 그 향기를 만드는데 성공한다.

그의 향수의 주 재료는 베르가보트(남유럽, 서부 인도에서 재배되는 유자나무류), 리메테(서인도산 레몬), 팜펠무스(오렌지와 비슷한 큰 열대과일), 오렌지 등이다. 물론 이전에도 여러가지 식물과 꽃들을 조합해서 만든 에센스들이 있었지만 배합이 일정하지 않아서 늘 향이 달랐고 무거운데 반해 ‘오 드 콜로뉴’의 비밀은 재료 배합의 정확함과 가벼운 향의 상쾌함에 있다.

순식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요한 마리아 파리나는 1709년 7월 13일 ‘율리히스 광장 맞은 편의 요한 마리아 파리나 유한 회사 1709’라는 긴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고는 궁전과 귀족들에게 향수를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들어서서는 이 긴 상표를 줄여서 ‘맞은편의 파리나 (Farina gegenüber)’라고 칭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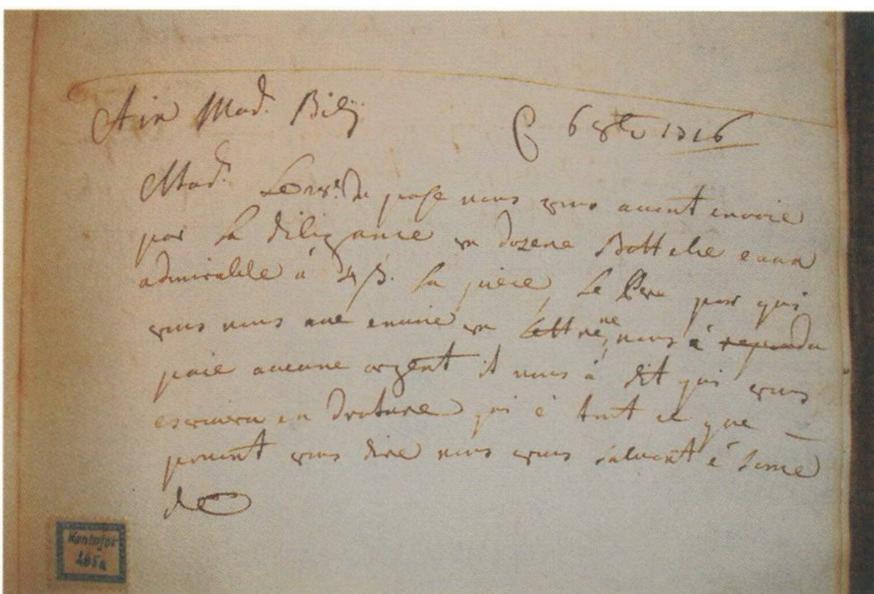
파리나 하우스: 옛날 그림과 현재의 모습.

불결한 위생과 몸의 악취에서 시달렸던 그 당시 부유층들에게 이 향수는 '영혼을 달래고 몸에서 끈적이지 않는 기적의 물'로 작용했는데 220ml 향수 한 병의 가격은 공무원 반년치 월급에 해당할 만큼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장부 기록을 보면 이 향수의 성공 정도를 엿볼 수 있다.

이 회사의 고객 장부 기록은 300m에 달하는데 알프스 북쪽 지역에서 가장 긴 기록이다. 당시 쾰른의 대제후 클리멘스 아우구스트는 한 달에 40병이나 주문했고 나폴레옹은 매일 아침 어깨와 머리에 이 향수를 발랐으며 하루에 약 한 병을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 로코코 시대의 풍미에 맞게 상류층 귀족들은 각종 파티에서 파리나의 '향기 나는 연회'를 벌였다. 향수 가게가 있던 거리에는 더 이상 짐승들이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바닥은 돌로 단장되었으며 황금과 은, 가죽, 크리스탈 제품들이 판매되는 명품가로 변모했다.

요한 마리아 파리나는 죽기 전 '유럽 내에 내 향수를 쓰지 않은 왕가는 거의 없다'라고 했을 만큼 유럽은 물론 러시아 왕가까지도 그의 향수에 매료되었으며 이 후 수많은 예술가, 문인, 배우,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의 향기가 되었다. 괴테는 향수를 적신 수건을 책상 위에 두고는 시상을 떠올리곤 했으며 모차르트, 토마스 만, 말레나 디트리히, 로미 슈나이더, 빌 클린턴에 이르기까지 남녀 모두가 이 향수를 사랑했다.

300년에 걸친 재판, 그러나 지금은 당시의 복제품이 세계적인



요한 마리아 파리나가 형에게 새로 창조된 향수에 관해 써서 보낸 편지

로 더 유명세를 날리는 듯 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4711사에서 제조된 '쾰른의 물'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향수이다.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은 무단복제가 범람하는 시대였지만 무단복제 금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1865년 경 쾰른시에만 파리나사를 불법으로 사칭하는 향수 제조업체가 39개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파리나 가문은 300년 동안 이에 맞서 자그마치 2천회의 재판을 벌였고 1875년 이후에야 아무도 '맞은 편'의 파리나 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4711사가 만든 쾰른의 물 (유사품 주의!)

쾰른 제조로 가장 성공을 했던 빌헬름 뮐헨스(Wilhelm Muelhens) 역시 1832년 상표 도용으로 고소되어 그 이름을 포기하고 결국 상표 이름을 자신의 상점이 있던 거리의 집주소인 4711을 따서 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네 슈퍼마켓 등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4711사가 아직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는 오리지널 '쾰른의 물'의 제조사로 잘못 알려져 있어서 관광객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가격 대비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싼 50ml의 오리지널 파리나사의 '쾰른의 물' 제품은 30유로인데 4711의 것은 불과 6,99유로이다. 심지어 4711사는 2003년 대기업에 흡수되어 중저가 제품의 대량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데 데오도란트나 물비누, 에프터 쉐이브 등까지도 함께 생산하고 있어 파리나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 전통의 길을 고수하는 파리나

오데 콜로뉴의 판매는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샵을 운영하긴 하지만 여전히 파리나사는 직영점과 몇몇 약국 그리고 편지 주문이 주를 이룬다. 아직까지도 왕가 혈통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법인 잉크로 쓴 편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백 년 전 그들 선조들이 했던 주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은 대를 이은 단골 고객이기도 하다.



켈른 관청 건물에 새겨진 파리나 형제들의 조각상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 8대째 가업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운영자 요한 마리아 파리나는 이러한 사업 운영 방식으로 인해 마치 다른 시간의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현재의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파리나는 불경기를 느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회사에 닥쳤던 단 한 번의 위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재료들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빠듯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따른 제조법을 고수했다고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향수 회사는 현재 25개 종류의 다른 향수들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켈른의 물'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85퍼센트는 해외로 수출된다. 그리고 파리나의 향수는 3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비밀 레시피 덕에 여전히 같은 향기가 난다. 마치 코카콜라의 비밀과도 같이 말이다.

하지만 단 한가지 이 회사에도 지난 3백년 동안의 전통을 깨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 가게의 운영자가 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창업자인 요한 마리아 파리나의 중간 이름인 '여자 이름' '마리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무덤 속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지도.

글쓴이 김지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함부르크음대 음악치료학과(석사)를 졸업했다. 현재 포츠담대학교 음악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지혜는 베를린에서 음악 치료사, 음악교육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오리지널 '켈른의 물' 향수병의 빨간 튜울립은 오리지널 '켈른의 물'을 보장하는 트레이드 마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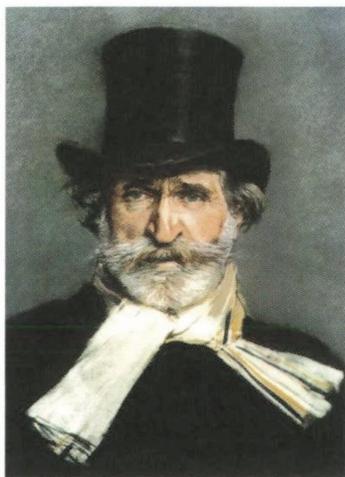


켈른의 물 향수병 변천사



# 베르디(G.Verdi)의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김홍승 \_ 대구 오페라하우스 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교수



주세페 베르디

1945년 광복 이후로 예술가들에게도 자유가 찾아오고, 하나둘 공연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1948

년 ‘국제오페라사’라는 단체에서 ‘오페라’라는 공연을 했다. “오페라가 뭐지?” 하는 사람들의 기대 속에 시작된 첫 오페라는 ‘춘희(椿姬)’, ‘동백꽃 아가씨’라는 뜻의 이 오페라는 한국 오페라사의 첫 출발을 남겼다.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이자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또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 트라비아타’는 이름만으로도 많은 가십거리들을 남겼다.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는 길을 벗어난 타락한 여인이라는 뜻인데 왜 ‘춘희(동백꽃아가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원작에 있다. 원작인 ‘동백꽃을 들고 있는 부인(La Dame aux camélias)’을 일본에서 ‘춘희(동백꽃 아가씨)’로 번역해 버렸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를 ‘LA(Los

Angeles의 줄임말) ‘Traviata’인 것으로 알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몇몇의 사람들을 경험한 적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어는 여성형, 남성형명사가 있는데 여기서의 La는 Traviata 앞에 붙는 여성단수 정관사이다. 영어의 The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오페라를 본 적 있느냐고 물으면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라 트라비아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자면 총 3막 4장(2막이 2장으로 나뉘어짐)이며 1853년 3월 6일 베니스의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동백꽃을 들고 있는 부인’이라는 이름의 원작, 피아베(F.M.Piave)가 이탈리아어 대본을 작성하였다.

▶비올레타(Violetta): 화류계의 여성이지만 그녀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에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폐병을 가지고 있어 파티 등의 화려한 생활을 즐기기에 힘들지만 ‘이것만이 나의 활력소이다’라고 생각하며 산다. 하지만 알프레도를 만나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

▶알프레도(Alfredo):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 가스통 자작의 친구이다. 자작의 친구이니 알프레도 역시 지방이긴 하지만 한 가문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 예전부터 비올레타만을 사랑하고 그녀만을 보았다.

▶제르몽(Germont): 알프레도의 아버지. 대도시로 유학(?)보낸 아들이 화류계의 여자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말에 아들을 데려가고자 올라온다. 비올레타에게 내 아들과 헤어져 달라는 말을 하지만 이후 약간은 안스러움을 느낀다.

▶플로라(Flora): 화류계의 여성으로 비올레타의 친구. 하지만 비올레타 보다는 한 단계 낮은 급으로 보면 될 듯하다.

▶듀폴 남작(Baron Douphol): 비올레타의 후견인.

▶후작(Marquis): 플로라의 후견인.

▶가스통(Gaston): 알프레도의 친구.

▶안니나(Annina): 비올레타의 하녀이지만 친구같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 성심성의껏 그녀를 돕는다.

▶의사 그랑빌(Doctor di Grenvil): 비올레타의 주치의.

## 1막 비올레타의 집 응접실

비올레타의 집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다. 그녀에게 파티는 일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며 파티를 즐기고 있다. 그 사람들의 사이에 등장한 가스통이 친구인 알프레도를 데려와 비올레타에게 인사시킨다. 파티는 점점 고조되고 모두는 ‘축배의 노래(Brindisi)’를 흥겹게 부른다. 이후 옆 응접실에서는 무곡(舞曲)이 흘러나오고 모두들 춤을 추기위해 자리를 옮기기 시작한다. 잠

시 걸어가던 비올레타는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잠시 휴식을 취한다. 그때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알프레도를 발견하고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멀리서 지켜봐왔다고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자신을 잊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심을 다하여 이야기하는 알프레도를 보고 감동하여 자신의 가슴에 달고 있던 동백꽃을 주며 그 꽃이 시들고 나서 다시 자신을 찾아오라고 한다. 파티가 끝나고 비올레타는 알프레도를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을 노래한다. 그러다 “아니야 난, 자유롭게 사는 이 생활이 나에게 어울린다”며 쾌락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 2막 1장 파리근교의 시골집

사람은 애절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일까? 알프레도는 비올레타와 함께 파리근교에 집을 얻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는 것도 잠시 안니나는 생활비를 위해 비올레타의 물건을 파리에 내다팔고 돌아와 알프레도에게 한심하다는 듯 눈길을 보낸다. 깜짝 놀란 알프레도는 직접 돈을 구해오기 위해 파리로 간다. 그 후 제르몽이 찾아오고 비올레타가 맞이한다. 그는 비올레타가 아들을 유혹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줄 알고 화를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고 놀란다. 하지만 제르몽은 헤어질 것을 부탁한다. 그녀는 거절하지만 간곡한 부탁에 절망하며 받아들인다. 제르몽은 가고 그녀는 알프레도에게 이별 편지를 쓰고 나가려 한다. 하지만 때마침 돌아온 알프레도를 만나고 그녀

는 편지를 숨긴다. 그녀는 울며 ‘당신을 사랑해요 알프레도!’ 라고 외치고는 뛰쳐나간다. 이후 그녀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는 절망하고 있는데 제르몽이 들어와 ‘아들아, 이제 돌아가자 고향으로!’ 라고 말하지만 알프레도는 플로라가 비올레타에게 보낸 파티 초청장을 보고는 자신이 싫어져서 화류계로 돌아갔다 생각하고는 복수하겠다고 뛰쳐나간다.

## 2장 파리 플로라의 응접실

흥겨운 파티에 모두가 다시 모였다. 비올레타는 후견인인 듀플남작과 함께 참석했다. 갑자기 벌떡 찾아온 알프레도는 남작에게 카드내기를 건다. 알프레도의 압승. 내기가 끝나고 알프레도는 비올레타에게 마음이 변한 것이냐고 묻는다. 비올레타는 제르몽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남작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고 화가 난 알프레도는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그녀의 얼굴에 돈을 뿌리며 그녀에게 모욕을 안겨준다. 사람들이 그의 무례함에 화가 나 그를 내쫓으려 하는데 아버지 제르몽이 나타나 아들을 혼낸다. 정신이 번쩍 든 알프레도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모두 알프레도를 비난하지만 비올레타는 혼자 그가 자신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며 노래를 부른다.

## 3막 비올레타의 집 침실

이제는 너무나 쇠약해진 비올레타는 침대에 누워 안니나의 간병을 받고 있다. 의사인 그랑빌도 안니나에게 오늘이 고비임을 알린다. 그녀의 손에는 제르몽의 편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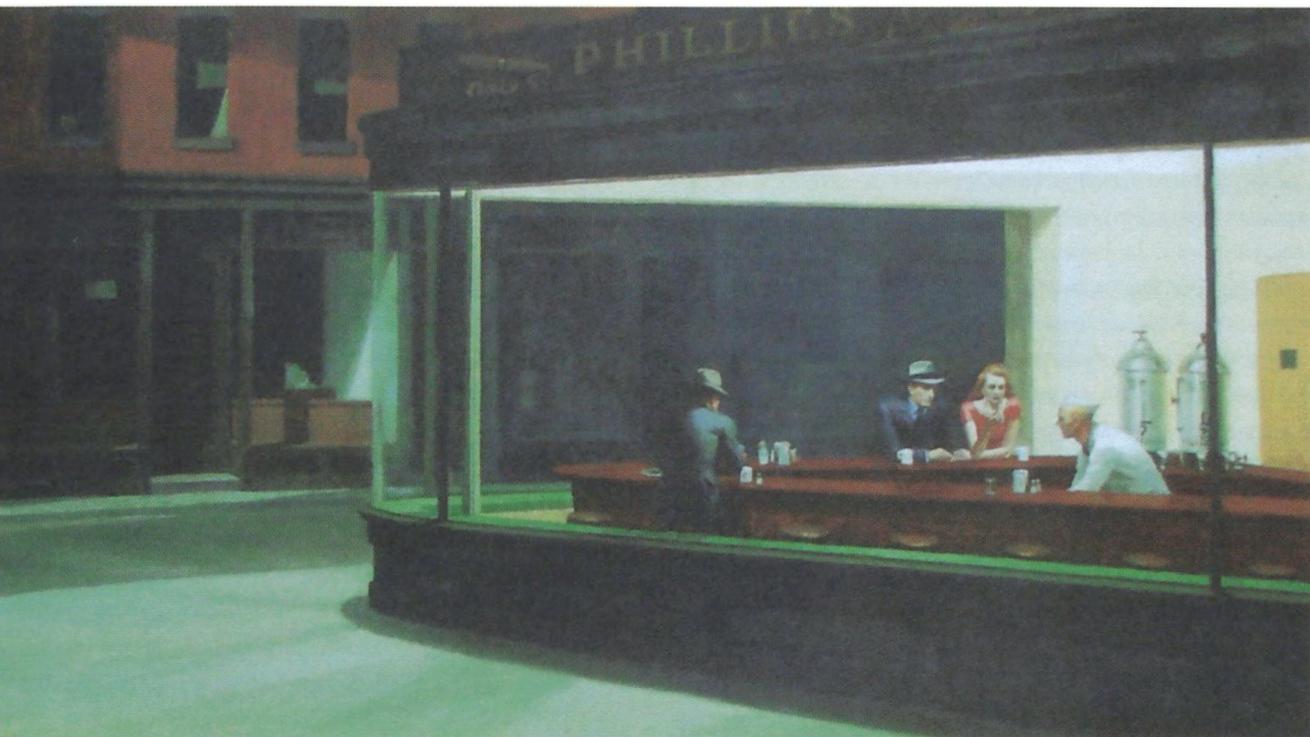
쥐어져있다. 비올레타의 사정을 알게 된 알프레도가 사죄를 하러 곧 찾아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며 절망하는 그녀. 그녀는 ‘안녕! 지난날이여’ 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때 갑자기 뛰어 들어온 안니나는 ‘오늘 너무 좋은 날이에요!’ 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녀는 알프레도가 왔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둘은 껴안는다. 둘은 이제 헤어지지 말자며 눈물로 맹세한다. 하지만 너무 쇠약해진 비올레타. 그녀는 알프레도에게 자신의 초상화가 담긴 목걸이를 주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한다. 점차 의식을 잃어가던 그녀는 갑자기 ‘이상해요 갑자기 고통이 없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며 외치더니 이내 숨을 거둔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사랑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오페라는 초연이 실패했다. 이태리, 한국 전 세계에서 사랑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들으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첫째,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 여과없이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올레타의 직업은 극 중 뿐만 아닌 현실에서도 문제였던 것이다. 둘째, 폐병에 걸린 비올레타 역을 폐병보다는 성인병 쪽에 가까울 것 같은 소프라노가 연기해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악평에, 알프레도역은 감기가, 제르몽역은 연습부족으로 아리아하나 제대로 부르지 못 했었다고 한다. 베르디는 악평에 시달렸으나 다시 1년 2개월 뒤 출연진을 바꾸고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 영화에서 되살아난 그림

## 에드워드 호퍼

채 경 혜 \_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밤샘하는 사람들 1942 유화

문화수도라 일컫는 파리, 뉴욕, 로마는 각 도시마다 고유한 색채가 있고, 통독 후의 베를린 또한 그들만의 색을 정립하여 개성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추었다.

경제대공황을 겪던 1930~40년대 당시 미국 대도시풍경은 콘크리트 빌딩 숲에 둘러싸인 그늘진 회색빛 도시풍경을 연상하면 되었다.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는 이러한 전형적인 미국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작가로 유럽에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절망이 엄격한 미와 균형을 이루는 도시를 그린다”는 본인의 말처럼 회색빛 도시의 허기진 풍경과 고독한 사회와 사람들의 내면을 잘 표현하였다.

호퍼가 사실적으로 묘사한 도시의 일상적인 장면들—인적이 끊긴 거리, 상점, 밤의 레스토랑, 관람객이 없는 극장, 카페, 모텔, 주택과 사무실 등 일상적인 공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감상자들에게 평소 익숙한 주위 환경이 그림 속에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면서 현대생활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 모호한 불안감, 공허함까지 느끼게 만들었다. 여기엔 어떠한 에너지나 낙천주의를 기대할 수가 없다.

에드워드 호퍼는 뉴욕 나이액 출신으로 뉴욕상업미술아카데미에

서 삽화를 배우고, 1900년부터 1906년까지 뉴욕미술학교에서 리얼리즘의 대가 로버트 헨리에게 사사했다. 24세 때 유럽을 여행하고 파리에 장기체류하면서 유럽전통미술과 인상주의에 관심을 가졌지만 자기만의 화풍을 일구어 미국적 도시풍경을 그렸으며, 미국적 장면에 탐닉하는 소위 ‘풍경화파’와는 스스로 구분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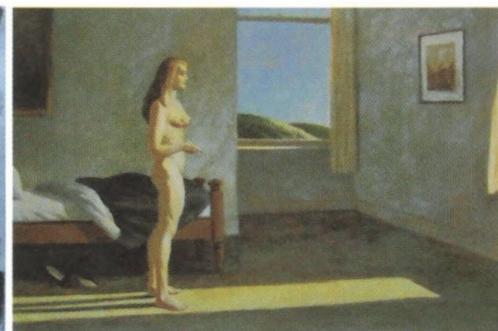
뉴욕에 정착한 이래, 작가로서는 드물게 평생 심각한 갈등 없이 한 곳에서 평온하고 정돈된 삶을 살았는데 1924년 결혼한 부인 조세핀과 함께 죽을 때까지 맨해튼 ‘빌리지’ 워싱턴 스퀘어 노스 3번지 스튜디오에서 조용하고 검소한 생을 살았다.

부인 조세핀은 화가이면서도 호퍼의 비평가이자 매니저로 선의의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호퍼작품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도시풍경을 주로 그렸던 호퍼는 여성 누드 또한 선호했는데 그 대상은 오로지 한 여성, 부인 조세핀이었다. <저녁바람, 1921, 에칭> <누워있는 누드, 1924, 수채화> <햇빛 속의 여성, 1961, 유화> 등 누드작품을 통해 여성에 대한 금지된 은밀한 시선과 여성의 성적 욕망, 상실감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1915년 에칭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전향하면서 8년간 50여점의 리얼리즘이 돋보이는 판화를 제작하고 1920년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했는데, 호퍼의 초기 판화들은 문명 속에 인간의 고립과 소외를 보여주고 자동차나 기차, 철길로 대변되는 기술적 상징이 자연을 제약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저녁바람, 1921, 에칭



햇빛 속의 여성, 1961, 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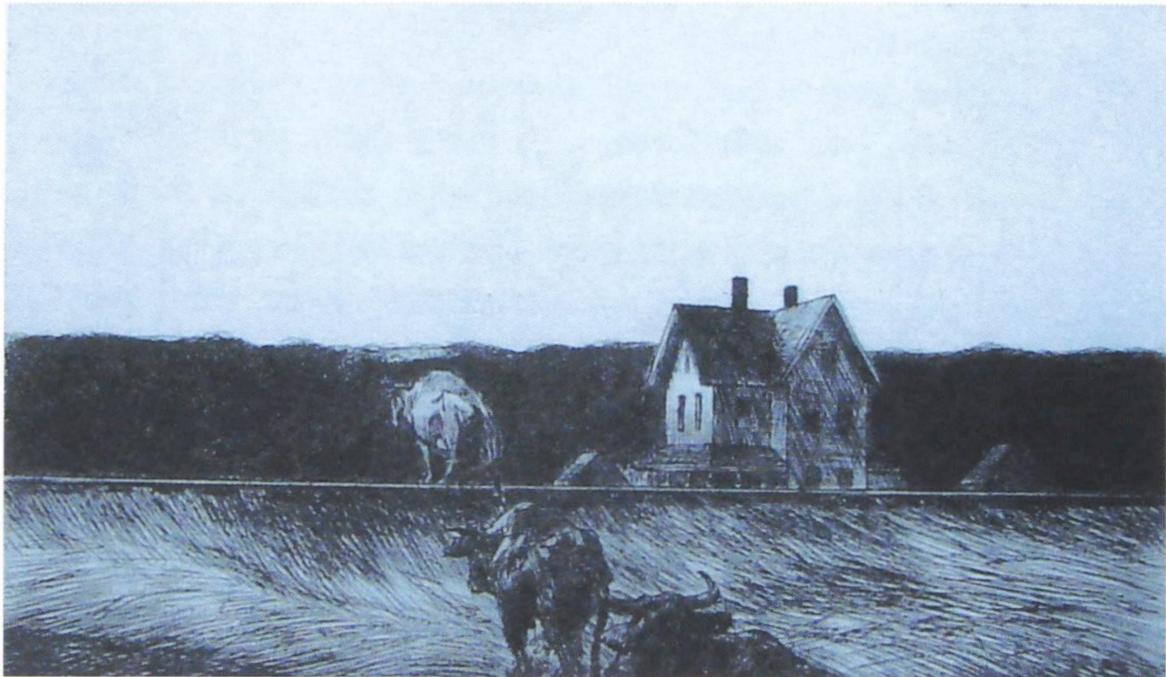
호퍼는 작품 속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도로, 공간, 철도를 자주 등장시켜 관객과 작품 사이에 거리감을 강조했는데, 유화로도 발표되었던 <철도건널목, 1923, 에칭>은 나무와 집, 신호기와 철길 등 서로 상반된 가치로 대치시키고 전신주와 큰 신호표지로 폐쇄된 장소에 한 남자가 암소와 함께 서있는 전형적인 미국적 풍경으로 문명의 한계를 풍자했다.

또 <미국풍경, 1926, 에칭>은 여러 마리의 소가 풀밭이란 자연에서 철길을 가로질러 집들이 있는 문명공간으로 이동 중인 모습을 그려 자연과 문명이 대립하고 자연이 문명으로부터 침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940년대 이후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은 마치 피츠제럴드의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오는 인물 같기도 하고, 도시 풍경은 당시 유명소설의 무대와 흡사하다. 호퍼의 리얼리즘은 후기로 갈수록 보다 뚜렷한 심리적인 효과를 자아내어 그가 의도한 공간이 현대인들에게 친밀한 만큼 더욱 낯설게 느껴져 인물들의 고독과 소외감은 한층 더 강조되었다.

호퍼는 미국적 미술의 정체성 형성에도 크게 기여했는데, 1950년대 이후 점차 대중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팝아트, 신사실주의 미술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새로운 '그림 미학'은 추상개념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진과 필름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술을 전공했던 히치콕의 경우 영화제작방식의 많은 부분이 호퍼의 그림과 일맥상통한데, 영화 <사이코, 1960, 히치콕감독>의 주 무대인 미치광이 저택은 호퍼의 <기차길 옆 집, 1925>을 참조한 것이다. 그리고 <폭력의 종말, 1997, 빔 벤더스감독>은 호퍼의 대표작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1942>을 설정해 넣었으며, <화양연화(花樣年華), 2000, 왕가위감독>는 장만옥이 비서로 등장하는 회사 사무실 한 컷에 <밤의 사무실, 1940>의 수동식 타이프라이터 등



미국풍경, 1926, 에칭

의 소품뿐 만 아니라 분위기까지 영화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이외에도 호퍼의 영향을 받아 미국인의 일상과 풍경을 묘사한 영화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양떼를 치는 두 명의 카우보이가 등장하는 <브로크백 마운틴>, 쇠락한 네바다주 엘코로 귀향하는 할리우드 퇴물 배우 이야기 <돈 컴 노킹> 등 많은 영화에서 호퍼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야간조명이 흐르는 적막한 거리풍경이야말로 기막힌 호퍼적인 공간의 연출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기획한 <투사와 반사-영화와 미술전, 1999> 서평에서故 이동석 학예사가 밝혔듯이 '영화와 미술은 기법과 프로세스에서 그리고 양식과 정신성에 걸쳐 밀접한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되었다. 그런 이유로 호퍼 사후 37년 되던 2004년 6월, 영국 '테이트 모던갤러리'는 호퍼 회고전을 마련하면서 평면작품에 그치지 않고 히치콕의 <의혹의 그림자>등 다수의 영화를 상영하였다.

후세인들은 호퍼를 두고 '도시의 고독 그리고 냉담한 목격자' 또는 '그의 그림이 던지는 고독은 오히려 유쾌하고 부드럽기까지 하다'라고 평했다. 그림 앞에 서서 우리는 침묵과 고독감을 느끼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를 넘어선 희망과 진한 존재감까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밤의 사무실 1940 유화



영화 화양연화(花樣年華)의 사무실 한 컷



일요일, 1926, 유화



체어카, 1965, 유화

# 빈 세기말 예술가들의

## 뮤즈이자 ‘영원한 여성’

# 알마 말러-베르펠

김 문 경 \_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3부작 저자



말러의 생애에 있어 가장 큰 전환점으로 알마와의 결혼을 꼽을 수 있다. 알마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음악가의 반려자에 그치지 않는다. 화가 클림트, 작곡가 첼린스키, 말러, 건축가 그로피우스, 화가 코코슈카, 문필가 베르펠 등 그녀와 결혼했거나 혹은 염문을 뿌린 이들의 이름이 실로 화려하기 그지없다. 알마는 이들 중 말러, 그로피우스, 베르펠과 차례로 결혼했다. 세 남편의 성을 모두 사용하면 이름이 너무 길어지게 되므로 두 번째 남편의 성을 생략한 ‘알마 말러-베르펠’로 스스로를 불렀다.

알마는 화가 에밀 신틀러를 부친으로, 성악가 안나 베르젠을 모친으로 하여 세상에 태어났다. 당시 부친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아 제자와 집을 공유하여 거주했는데 이때 어머니가 제자와의 불륜으로 그레테라는 이복동생을 출산하기도 했다. 알마가 13세 되던 해 아버지 에밀 신틀러가 작고하고 어머니는 그로부터 5년 후 아버지의 제자인 화가 카를 몰과 재혼했다. 아버지의 이른 사망과 어머니의 남성편력에 상처를 받은 알마는 일찍부터 음악과 문학에 눈을 떴다.

알마는 오르간 주자 요제프 라보르에게 대위법을 배우고 극장감독 부르크하르트에게서 니체의 철학을 전수 받았으며, 첼린스키에게는 작곡을 배웠다. 빈의 유명화가 클림트와는 분리파 화가인 게부 덕분에 일찍부터 교제하였고 그와 첫키스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부모가 클림트와의 만남을 철저히 금한 탓에 그녀의 관심사는 작곡 스승에게로 옮겨갔다. 첼린스키를 못생겼다고 놀리면서

도 그와 스킨십을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가 이어졌다. 알마가 22세가 되던 해인 1901년 11월 7일, 한 사교계 파티에서 빈 궁정 오페라극장의 지휘자이자 음악감독인 말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둘은 19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나이차가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어 이듬해 3월 9일 결혼식을 올리기에 이른다.

알마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살폈지만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결혼생활에 점차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남편의 에고이즘에 언더리가 난 알마는 결혼생활 8년차인 1910년 외도를 저지르고야 만다. 요양차 온천에 들렀다가 그로피우스라는 젊은 건축가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말러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와 상담하는 등 신경쇠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그로부터 1년 후 1911년, 말러는 결국 교향곡 제 10번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다.

말러의 죽음은 알마에게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말러의 주치의 프란켈, 작곡가 슈레커, 생물학자 파울 캄머러와의 연애를 거친 알마는 표현주의 화가 코코슈카와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게 된다. 코코슈카의 지나친 질투심으로 결혼까지 가지는 못하였고 결국 그로피우스와 재혼한다. 그로피우스가 바우하우스 활동으로 바쁨 틈을 타 만나게 된 프란츠 베르펠이 결국 알마의 마지막 남편이 되었다. 세기말 빈 남성 예술가들의 절대적인 뮤즈였으며 ‘영원한 여성’이었던 알마는 유명한 남편들이 남긴 유산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1964년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 멕시코 I

# 마리아치(Mariachi)

황 윤 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만한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라는 노래가 있다. 멕시코의 노래를 번안한 가요였는데, 그 원곡은 '세 개의 다이아몬드' 라는 뜻을 가진 트리오 그룹 '로스 프레스 다이아만테스(Los Tres Diamantes)' 의 노래이다. 'Luna Llena(보름달)' 이 원래의 제목으로 느릿한 기타 반주와 함께 멕시코 특유의 팔세토 창법으로 노래하는 낭만적인 멜로디와 휘파람 소리가 언제 들어도 감미로운 라틴음악의 고전이다. 또한 트리오 로스 판초스(Trio los Panchos)의 레코딩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명곡들도 빠질 수 없는 멕시코의 노래들로 기억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려온 이 음악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멕시코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해 온 마리아치(mariachi) 음악과 볼레로(bolero)의 전통이 담겨 있는 가장 멕시코다운 음악 스타일 중의 하나이다.

스페인과 함께 가장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나라로 손꼽히는 멕시코. 멕시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마리아치' 음악일 것이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광장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남성 뮤지션들이 낭만적인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는 모습은 멕시코 여행을 해보지 못한 이들도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이다. 테킬라를 마시며 음악을 즐기는 멕시코 사람들은 마리아치 밴드를 동원해 한밤중에 사랑하는 사람의 창가에서 세레나데를 전하기도 한다. 로맨틱하고 밝은 감성을 지닌 마리아치 음악은 낭만적인 멕시코 사람들의 생활 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그들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문화적 산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리아치는 기본적인 악단의 형태를 의미하거나 하나의 음악 장르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멕시코의 민속 음악 전반에 걸친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포용하고 있다. 처음에 마리아치 음악은 결혼식

이나 마을의 다양한 행사를 빛내는 향토색 짙은 음악으로 출발해 바이올린과 기타, 하프 등의 악기를 중심



으로 노래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음역대가 다른 개량된 기타들이 추가되고, 특히 트럼펫이 가세해 더욱 풍성하고 낭만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동안 유입된 유럽의 문화가 마리아치의 음악과 악기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식민 시대의 유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안에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담아 멕시코의 것으로 바꿔 놓는데 성공했다.

마리아치가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발전한 것은 보통 19세기 초반 스페인과의 독립전쟁 당시로 본다.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대변하며 생활 속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였던 마리아치 음악은 멕시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나아가 독립전쟁의 승리를 견인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리아치 음악이 오늘날 멕시코의 젊은이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100년을 훌쩍 뛰어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밴드를 비롯해 현재 많은 마리아치 전문 밴드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명한 밴드들은 여러 영화에 등장하거나 국가 행사에도 초대되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기도 하다.

고단한 일상에서도 '사랑' 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낭만적인 삶을 향유하고자 했던 멕시코 사람들의 낙천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마리아치 음악. 멕시코가 지닌 인종과 문화의 혼혈이 내재되어 있는 산물이지만, 멕시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호흡하는 음악으로 존재하고 있다.

## 유쾌한 무대, 빈곤한 콘텐츠

# 재독 코리안심포니, 아이레네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합동공연

김창욱 \_ 동아대 초빙교수, 역사음악학



독일에서 건너온 재독 (在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내 아이레네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합동공연이 8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무엇보다 이번 콘서트는 재독 한인악단이 주도

하는 국내연주라는 점에서 지역 음악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재독 코리안심포니는 2007년 166명의 단원으로 창단되어 지금까지 7회의 정기연주회를 연 바 있고,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을 딴 아이레네필은 '하모니를 통한 평화'를 지향점으로 다양한 콘서트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 아이레네필의 재독 코리안심포니 초청형식으로 꾸며진 이번 콘서트는 8월 5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이은 두 번째 무대였다.

두 오케스트라의 단원 80여 명으로 재구성된 악단(지휘 배종훈)은 대편성 관현악단 특유의 풍부한 음향은 물론,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까지 펼쳐 보였다. 이건용(李建鏞)의 창작 발레모음곡 '바리공주'를 시작으로 베르디와 비제의 오페라, 비발디의 협주곡, 거쉬인의 재즈음악, 그리고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민족적 색채가 짙은 이건용의 '바리공주'는 고조선의 무속신화를 바탕으로 있다. 즉 공주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다만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림' 받았던 '바리'를 타악의 리듬을 중심으로 음악화한 것이다. 오케스트라는 현악과 관악, 느림과 빠름, 부드러움과 강렬함의 유효적절한 대비에 이어, 굿거리장단이 두드러진 '용의 춤'에서 큰북, Gong, 팽과리, 팀파니 등 동·서양 타악기의 효과적인 운용을 꾀했다. 특히 오케스트라는 이날 하이라이트인 쇼스타코비치의 교

향곡 제 5번 '혁명' 4악장에서 장대한 스케일과 격렬한 음향효과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휘자와 일사분란한 악단의 일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기에 협연자로 나선 흑인 소프라노 가수 엔젤 블루의 콜로라투라적 기교와 성질(聲質)의 탄력성, 캐나다인 브라스의 리더다운 트럼페트 엔스 린더만의 능수능란한 연주력과 쇼맨십은 객석을 가득 메운 수용자 청중의 열광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번 콘서트는 재독 코리안심포니와 아이레네필의 진면목을 가늠케 하는 '본격' 연주회라 보기 어려웠다. 탁월한 주력(奏力)을 겸비한 협연자를 전면내내 내세운 점,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점, 짧고 가볍고 친근한 악곡들을 모아 프로그램화한 점 등이 그렇게 보이게 했다. 요컨대 그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의 콘서트였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모호한 음악적 정체성만 드러내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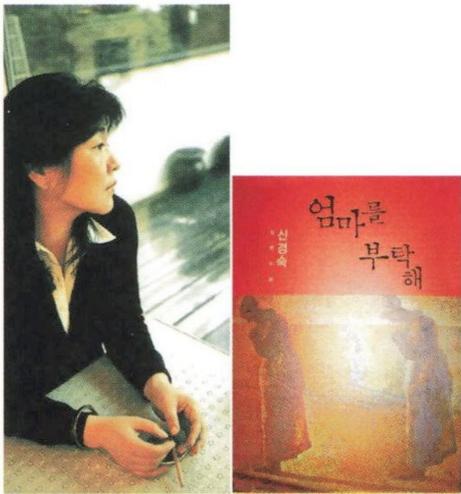
한편 주최측은 이번 콘서트의 입장객들에게 공연 팸플릿을 1천 원에 팔았다. 청중에 대한 최소의 서비스로서 마땅히 제공해야 할 팸플릿을 유료로 판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팸플릿은 빈약하고 조악하기 그지없다. 그 흔한 악곡해설조차 없는 팸플릿은 주최측 상임고문 인사말, 주한 독일대사 격려사, 프로그램, 출연진에 대한 소개로 속지 6면을 할애하고, 무려 8면을 갖가지 스폰서 광고로 가득 채우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는 오자(誤字)와 띄어쓰기의 오류는 물론, 일관성 없는 체제,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적지 않았다. 가령 '~로서'를 '~로써'로 썼다든지, 작곡가 소개에서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셨고...총장을 역임하셨다" 등이 그러했다.

'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이레네필), 혹은 '문화사절의 사명감' (재독 코리안심포니)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있는 기획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였다.

## 엄마를 잃어버린 시대의 슬픔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황 선 열 \_ 문학평론가



신경숙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를 잃어버린 시대에 엄마를 찾으려는 가족들의 슬픔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엄마는 가족의 한 일원이고, 그 가족은 엄마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엄마라

는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처음과 끝부분에 호명하고 있는 말들은 중요한 기표가 된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소설의 첫 페이지 첫 부분에 선언처럼 하는 말이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이라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이라는 말이다. 이 뜬금없는 말은 당황스럽다. 엄마를 잃다니, 어떻게 엄마를 잃을 수 있을까. 이 첫 부분의 선언은 소설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진술이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구개월째다.”

이 소설의 끝부분에도 엄마는 잃어버린 상태다. 엄마를 잃어버린 사실은 현재진행형이다. 첫 페이지의 선언은 소설의 결말 부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니고, 엄마가 실종된 것도 아니고, 엄마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엄마가 떠나간 것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엄마는 왜 잃어버린 것일까.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원래 누군가의 소유였다는 말이다. 누군가의 소유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다.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라는 이 다정한 분은 도대체 누구의 소유였을까. 엄마는 가족의 공동 소유였다. 엄마는 당연히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표이었다. 엄마는 가족

의 기표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엄마의 소유 문제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엄마는 원래 가족의 공동 소유였는데 어느 날 그 소유물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것도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첫 번째 장이 시작된다.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바로 다음날부터 찾아 헤매고 있지만, 이야기는 엄마를 잃어버린 일주일 뒤부터 시작되고 있다. 처음에는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존재인지를 까맣게 잊고 있다. 그러나 엄마를 잃고 난 뒤에야 그들이 엄마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엄마는 각자의 호주머니에 늘 들어있는 동전처럼, 아무런 의미없이 존재했던 것이다.

'너'와 엄마의 관계, '그'와 엄마의 관계, '당신'과 엄마의 관계는 각자 다른 시선으로 엄마에게 접근하지만, 그 각각의 시선은 공통된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의 인물들은 그동안 엄마를 늘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생각하는 관념대로 움직여준 존재라는 것이다. 엄마는 가족 모두의 소유물이었고, 당연히 그 몫을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엄마가 엄마의 존재를 스스로 찾으려고 한 것은 한 달에 40만원씩 소망원에 기부하는 일, 그리고 박소녀라는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곰소의 남자를 만나는 일이었다. 그 일 말고는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의 존재가 감춰진 상태, 그 은둔의 세월동안 엄마는 묵묵히 엄마의 몫을 해왔다. 그것은 우리 시대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엄마의 모습이었다. 그런 엄마를 우리는 그저 이름없는 존재, 엄마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진정한 모성이 사라진 시대에 대한 작가의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엄마를 둘러싼 가족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엄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엄마의 시대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소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 보고 만지고 느끼며 즐기는 신나는 장난감의 세계

## 세계 장난감 체험관 토이뮤지엄



어린이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장난감 세계 '토이뮤지엄'이 지난 7월 17일 문을 열었다. 탁 트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송정해수욕장 해변가에 자리한 토이뮤지엄은 지상 8층 건물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장난감을 비롯해 인형, 모형, 놀이기구 등 600여점이 넘는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토이뮤지엄은 어린이들이 전시된 장난감을 직접 가지고 놀 수 있는 체험형 놀이공간으로, 어른들의 제약과 간섭에서 벗어나 어린이라면 누구나 신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어린이 세상이다.

토이뮤지엄은 각 층별로 7개의 테마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테마관에 전시된 장난감과 모형들은 관장인 백선희씨가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유명완구점은 물론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을 돌며 직접 수집한 것이다.

입구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영화의 나라'와 만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해리포터, 슈퍼맨, 배트맨 등 영화 24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피규어(관절이 움직일 수 있어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형장난감)와 장난감, 영화관련 자료 등이 영화별로 전시되고 있다. 이곳 '영화의 나라'는 스타워즈, 로봇태권브이, 킹콩 등 어른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영화 속 주인공들도 함께 만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3층 '모형의 나라'는 자동차를 비롯해 비행기, 오토바이, 탱크, 장갑차 등 300여가지 다양한 모형장난감을 만날 수 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아우디, 벤츠 등 세계적인 명차에서부터 영화에 등장하는 고급차량과 각국 대통령의 전용차까지 다양한 모형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다. 한켠에 설치된 40m 길이의 자동차 레이스는 어린이들이 직접 리모컨으로 모형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어 어

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4층 사무실을 지나 5층 '인형의 나라'에 들어서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형을 만날 수 있다. 돌리, 뽀롱이, 뽀로로 등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우리나라 캐릭터인형에서부터 키티, 포켓몬스터 등 일본의 캐릭터인형과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 등 디즈니 만화의 주인공까지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인형들이 한자리에 전시되고 있다. 또 한복과 치파오, 기모노 등 전통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인형들이 한켠에 전시되고 있어 한·중·일 3국의 독특한 복식문화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를 실물 그대로 축소한 길이 12m 모형은 4차선 도로 위로 달리는 자동차까지 정교하게 재현해놓고 있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6층 '놀이의 나라'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고 소리치며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다. 미끄럼틀과 철봉, 소꿉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모형집 등 다양한 실내 놀이기구를 설치해 변변한 놀이공간 하나 갖지 못한 도시의 아이들에게 마음놓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7층에 자리잡은 '공작의 나라'에서는 80여 가지의 다양한 공작놀이 장난감을 만날 수 있다. 세계적인 블록완구인 레고를 비롯한 각국의 유명 블록완구와 과학완구, 색칠하기, 종이접기 등 공작놀이 장난감과 미니당구, 탁구, 핀볼 등 게임기구가 구비되어 있어 함께 온 부모,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입구에는 롯데자이언츠야구단을 포함한 유명 야구선수들의 싸인볼과 세계 유명 스포츠스타의 피규어가 함께 전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통유리 사이로 송정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8층 키즈카페는 어린이와 부모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카페테리아와 완구를 판매하는 토이샵이 들어서 있다. 또, 이곳에서는 각 층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어 함께 온 부모들의 휴식공간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토이뮤지엄은 개관 후 입소문이 나면서 한 달만에 7천여명이 다녀갔다. 지금도 평일에 200여명, 주말에 400여명이 이 곳을 찾고 있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 30분 개관하며 관람권을 구입한 관람객들은 시간 제한 없이 저녁 7시까지 하루종일 이용이 가능하다. (글, 사진/정복엽)

- 관람료  
유아(12개월이상~초등학생 이하) 8,000원  
어른 6,000원  
(30인 이상 단체 10% 할인)
- 문의  
토이뮤지엄  
702-0891~3,  
www.toymuseum.kr



## 고신의대 관현악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9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93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 재학생들로 창단된 고신의대 관현악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룻시니/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브람스/교향곡 제 3번 바장조 작품 90  
· 지휘/황장수 · 협연/곽찬이(본과 3년)

■ 관람료 무료

■ 문의 이재민(010-8548-5562)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대바람 소리'

9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휘 이상규

대금 어경준

해금 김성아

무용음악과 연극음악, 실용음악에까지 음악의 영역을 넓혀온 작곡가 이상규가 객원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해탈한 장자풍의 정취를 대금으로 표현한 객원지휘자 이상규의 대표곡 '대바람 소리', 경쾌한 선율이 한층 더 돋보이는 '가을의 기억', 한 민족 정신의 흥과 신명의 향이 묻어나는 해금협주곡 '향'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백규진/가을의 기억  
이상규/대금협주곡 '대바람 소리'  
백대웅/남도아리랑 등 수곡  
· 객원지휘/이상규(한양대학교 교수)  
· 협연/어경준(대금, 경기도립국악단 단원), 김성아(해금, 한양대학교 교수), 김용우(피리, 태평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구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제 5회 정기연주회

9월 6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 2009 BN그룹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9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음악을 통해 희망과 화합의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비엔그룹이 마련하는 제 2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100년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악장 데이비드 김,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부수석 플루티스트 최나경, 커티스음대에 재학중인 차세대 유망주 한효림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이탈리아 기상곡  
메르카단테/플루트 협주곡 마단조 작품 67  
시벨리우스/핀란드아 등 수곡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협연/데이비드 김(바이올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악장), 최나경(플루트,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수석), 한효림(바이올린, 커티스음대 재학중)

■ 관람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KNN방송국(1577-7600, www.knn.co.kr)

## 2009 푸르덴셜생명 아름다운 음악회 - 리처드 용재 오닐 & 김지연 'Love on the Strings'

9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06년~2008년 전국 리사이틀 전석 매진, 2007년부터 창단 멤버로 활동한 앙상블 디토의 전국 리사이틀 전석 매진 등으로 한국 클래식계의 최고 스타 연주자로 떠오른 비올리니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1984년 뉴욕필 오디션에서 우수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세계적인 프로덕션과 성공적인 무대를 연출해온 카메라타 안티과가 들려주는 'Love on the Strings.'

### 프로그램

바하/관현악 모음곡 제 3번 라장조, 제 2곡 '아리아'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텔레만/비올라 협주곡 바장조  
코렐리/바이올린 소나타 12번 라단조 작품 5 '라 폴리아'  
비탈리/사콘느 사단조  
헨델-할보르센/파사칼리아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25,000원 · A석 10,000원

(S석과 A석은 푸르덴셜생명의 후원으로 50% 할인되었습니다.)

■ 문의 크레디아(02-747-3886~7)



지휘 오충근

바이올린 데이비드 김

플루트 최나경



리처드 용재 오닐

김지연



카메라타 안티과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1998년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산하단체로 '부산 리틀스트링스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인코리안 유스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제 5회 정기연주회.

엘가/위풍당당행진곡  
베토벤/교향곡 제 5번 '운명'  
브람스/헝가리무곡 제 6번 등 수곡  
· 지휘/윤상운

- 관람료 초대
- 문의 장은정(017-842-6688)

## 동서대학교 뮤지컬과 학과창설 10주년 기념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9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동서대학교 뮤지컬학과 학과창설 10주년을 기념해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마련하는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공연.

제 3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금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동서대 졸업생인 뮤지컬 스타 성기윤, 이건명과 메이드 인 부산 뮤지컬인 '구름빵', '부산갈매기' 출연진의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다.

· 총 예술감독/차순례 · 연출/서병구  
· 지도/김관, 오세준, 이홍득, 하병욱, 정태미, 김경엽,  
· 출연/이건명, 성기윤, 박정우, 송리나, 김윌, 서승원, 김병국 외 동서대학교 뮤지컬과 재학생, 졸업생

- 관람료 초대
- 문의 DS뮤지컬 컴퍼니(320-1910, 323-3244)

## 김성희 피아노 리사이틀 - For Romantic

9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경성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도독,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성희 피아노 리사이틀. 김성희는 유학 중 독주회를 비롯해 Steinway & Song 150주년 기념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2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II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09년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2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지낸 광승과 악장을 지낸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이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는 이번 무대는 멘델스존이 17세에 작곡한 '한여름 밤의 꿈' 서곡, 베토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종교개혁 300주년 축제를 기념해 작곡된 교향곡 제 5번 라장조 '종교개혁' 작품 107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서곡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멘델스존/교향곡 제 5번 라장조 '종교개혁' 작품 107  
· 지휘/광승 · 협연/신상준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지휘 광승

바이올린 신상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 아래 그 콘서트' 이한철 월드투어 Vol.8 '순간의 기록 부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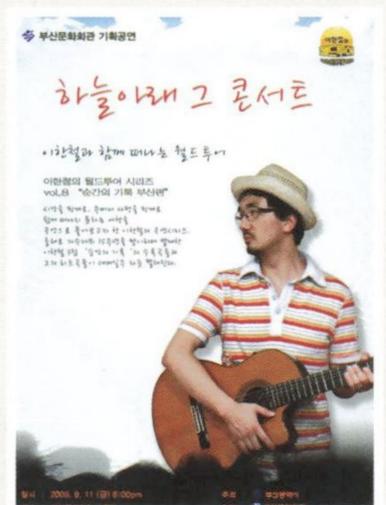
9월 11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2009년 가을 첫 선을 보이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 아래 그 콘서트'.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라이브 쇼 '하늘 아래 그 콘서트' 첫 무대를 장식하는 이한철은 1994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 이후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음악세계에 데뷔했다. 2000년, 직접 인디레이블 '튜브앰프레코드'를 설립하고 '볼독맨션'의 이름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음악을 발표한 이한철은 2006년 8년만에 솔로로 등장, '괜찮아 잘 될거야~'로 유명한 '무대위의 슈퍼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한철은 그동안 서울, 부산, 광주 등 국내 도시와 오사카, 오키나와, 타이페이에서의 해외공연, 그리고 다락방처럼 특수한 공간을 컨셉으로 한 공연들을 진행해 왔다. 이번 무대는 시간을 핑계로, 주머니 사정을 핑계로 쉽게 떠나지 못하는 여행을 공연으로 풀어보고자 기획한 이한철의 공연시리즈인 월드투어 시리즈 여덟 번째 무대 '순간의 기록 부산편'으로 올해로 가수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이한철 3집 '순간의 기록' 수록곡들과 그의 히트곡들이 세계 일주처럼 펼쳐진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체코 작곡가 기념 음악회 Kammermusik mit Sung-Hee Kim 실내악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가졌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아리양상블 단원인 첼리스트 강찬욱,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 플루티스트 최낙주가 함께 연주한다.

### 프로그램

슈베르트/즉흥곡 90 제 3번, 작품 142 제 13번  
멘델스존/판타스틱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울산 피아노 소사이어티 연주회

9월 9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2007년 12월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10주년을 맞아 피아노과 졸업생과 재학생 70명과 '울산 피아노 소사이어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후원 회원으로 결성된 울산 피아노 소사이어티 부산연주회.

###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27 제1번  
슈만/환타지 작품 17 등  
· 연주/조미지, 박성아, 김양미

- 관람료 초대
- 문의 박성아(010-2969-6060)

## 제 11회 부산 119 소방동요대회

9월 10일 목요일 오후 2:00 대극장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119소방동요대회. 11회를 맞는 올해는 유치원 10개팀 299명, 초등학교 10개팀 331명이 참가한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소방본부(760-3073)

## 창작합창 21 '부산을 노래하다'

9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합창음악 연구와 창작발표를 통해 합창음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일깨우고 창작 합창음악 발전을 위해 2006년 결성된 '창작합창 21'의 2009년 창작합창음악 발표회.

동의대학교 최삼화 교수를 비롯 현재 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창작합창 21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을 노래한 시에 곡을 입힌 창작 합창음악을 발표한다.

### 프로그램

임록/꿈꾸는 장산(주강식 詩)

## 제 23회 부산청소년합창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부산청소년합창제 제 23회 무대.

올해는 부산지역 16개 구, 군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산진구, 동구, 해운대구소년소녀합창단과 경남월드라이어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부산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이 출연, 즐거운 합창무대를 열어준다.

### 프로그램

이건륜/마그니피커트  
돈 베직/여유있게 걷게 친구  
하늘나라 음악교실/이근호  
서정민/두껍아 두껍아, 가위바위, 엄지야 엄지야 등 수곡

### 출연

부산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지휘/이건륜)      동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민수연)  
부산진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 훈)      해운대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창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 2010년 부산세계음악제 (가칭)를 위한 Prè음악회 부산음악협회 Piano Grand Festival

9월 13일-14일 일-월요일 오후 7:00 대극장

리듬, 선율, 화음, 강약 등 모든 음악적 기능을 가진 악기의 왕 피아노의 매력을 들려주기 위해 부산의 피아노 연주인들이 피아노오케스트라를 구성, 베토벤의 교향곡전곡을 연주한다.

### 제 1일 9월 13일(일) 협주곡의 밤

#### 프로그램

멘델스존/피아노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40  
베토벤/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삼중협주곡 작품 56, 피아노협주곡 제 4번 사장조 작품 58 등 수곡  
· 지휘/박성완    · 타악기/김정우    · 반주/뉴프라이밍 오케스트라  
· 협연/최미정, 김여진, 심지현, 박현정, 이유현, 신지아

### 제 2일 9월 14일(월) 피아노로 듣는 심포니

####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 1번~제 9번

#### 연주

김소형, 이승희, 김지현, 김은미, 최윤정, 김진희, 장소은, 정정화(이상 1번), 김미연, 김정연, 김태령, 박희경, 정광민, 이유미, 허인순(이상 2번), 한명희, 박정온, 권혜령, 한은아, 김지령, 박선재, 안원희, 차미령(이상 3번), 정미선(4번), 김경희, 김민, 박지은, 신애정, 유영욱, 이명숙, 하서경, 한정민(이상 5번) 외

-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최삼화/반가운 섬 오륙도(홍을헌 詩)  
 김성재/낙동강에 새봄 오듯(박옥위 詩) 등 수곡  
 · 소프라노/김기연 · 테너/문대진 · 피아노/김혜정  
 · 합창/코람데오합창단(지휘/황장수, 반주/심은정)

- 관람료 무료
- 문 의 동의대학교 음악과(890-1318)

## 풍류전통예술원 10주년 기념 동해바다 거칠산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풍류전통예술원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무대로 동해안 별신굿 이수자들을 주축으로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다채로운 무속음악의 장단을 들려준다. 부산에서 보기 힘들었던 동해안 별신굿

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타악 합주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문굿, 무속사물, 모듬북 합주, 성주굿, 뒷풀이  
 · 특별출연/김동언(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박종환(010-2781-3888)

## 제 10회 김정희 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 하늘에서...땅끝까지...아름다운 피아노 이야기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30 중극장



브니엘예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부산여대 음악학과에 출강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희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콰르텟을 선사한다.

### 프로그램

노영심/학교가는 길(2Piano 8Hands)  
 차이코프스키/March(2Piano 12Hands),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가단조 작품 94 등 수곡

### 연주

김정희, 정다운, 장묘희, 차혜자, 김형성, 김정민, 성현우, 이지은, 강령경, 김예인, 김지원, 최선, 이주희, 박정현, 송예원, 임다희, 송민서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정희아카데미(628-4206)

## 9월 한 낮의 유U; 콘서트 가을 속의 아리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여유로운 오전 시간에 즐기는 클래식 음악의 향연 9월 한 낮의 유U; 콘서트.

가을의 길목에서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박성완이 지휘하는 가마피 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소프라노 신정순, 테너 김지호, 테너 박웅, 바리톤 박대용 등이 가을의 서정이 담긴 우리 가곡,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가을'  
 뮤지컬/ '지킬과 하이드' 중 'Once upon a dream', 뮤지컬 '캣츠' 중 'Memory'  
 메르세르/고엽( Autumn Leaves)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다단조 작품 35 등 수곡

- 연주/가마피 필하모니오케스트라(지휘/박성완)
- 협연/소프라노 신정순, 테너 김지호, 테너 박웅, 바리톤 박대용, 트럼페터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피아니스트 이진성

- 관람료 균일 15,000원(국제신문 구독자 및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국제신문(500-5222)

## 2010년 부산세계음악제(가칭)를 위한 Pre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후쿠오카 교류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9월 18일 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2009 부산예술제 개막을 기념하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 교류음악회'.

박성완 교수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악가들이 부산, 후쿠오카 우정의 해를 기념하며 후쿠오카의 성악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펼친다.

### 프로그램

최영섭/추억  
 비제/투우사의 노래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까르노메' 등 수곡

### 출연

소프라노 김동희, 김유섬, 김유진, 김행재, 서경숙, 윤지영,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김지호, 윤정윤, 바리톤 공정배, 김길수, 박대용, 베이스 유형광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 특별출연/소프라노 요시다 유키, 바리톤 쿠세 야스토시

-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 문 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 부산버سم새예술단 사물놀이와 전통춤

9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95년 '부산풍물 버سم새'로 출발, 歌 舞 樂을 겸비한 부산지방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이수자, 전수자와 부산, 울산, 창원시립예술단의 뜻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버سم새예술단이 선보이는 사물놀이와 전통춤 무대.

산버سم새예술단이 선보이는 사물놀이와 전통춤 무대.

'판굿'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풍물놀이의 잭이들이 상모와 북, 장구, 쇠를 치며 기예가 출중한 잭이(악사)가 개인놀이 등 다채로운 예능과 움직임 행하는 전통놀이이다.

-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부산버سم새예술단(751-3100)

## 광남 유나이티드오케스트라 제 3회 정기연주회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1999년 부산 광남초등학교 재학생, 졸업생(중, 고, 대학생), 전문 연주인들로 창단된 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부산초등관현악협회 '꿈나무 음악회', 유진박과 함께한 열린 음악회, 부산바다축제 해양문학의 밤 등에서 음악사랑을 실천해 왔다.

회, 부산바다축제 해양문학의 밤 등에서 음악사랑을 실천해 왔다.

### 프로그램

- 오펜바흐/천국과 지옥 서곡
- 올리바도티/장미의 축제 서곡
-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등 수곡
- 지휘/윤강수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윤강수(010-4555-1470)

## 테너 조운환 귀국 독창회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한 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원 성악과(오라토리오-Lied u. Oratorium),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원 Hanns Eisler 성악과 최고연주자과정 수석 졸업, 독일 Leipzig 국립음악원 Felix Mendelssohn Bartholdy 마이스터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테너 조운환 귀국 독창회.

## 부산예술제 2009 무용극 '허황후(許皇后)'

9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을 대표하는 레퍼토리 발굴을 위해 부산무용협회가 의욕적으로 선보이는 무용극 '허황후(許皇后)'.

2002년 아시안게임 문화축전에서 국악과 무용이 어우러지는 대형 창무극으로 선보였던 작품을 무용극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이 작품은 1막에서는 아유타국의 흥망과 공주 허황옥의 유년, 2막은 가락국기조의 구지가를 토대로 수로왕 탄강(誕降) 설화를 춤극으로 구성했다.

원로무용인 심지영(왕비), 조황제(왕),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수로왕)와 부산무용협회 회원 허경미(허황후), 조재범(탈해왕), 김태윤(비슈뉴), 이지은(유모) 등 부산의 무용인 60여명이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운 가야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 안무/이영희, 민병수, 한은주
- 예술감독/최은희

### 출연

심지영(왕비), 조황제(왕), 홍기태(수로왕), 허경미(허황후), 조재범(탈해왕), 김태윤(비슈뉴), 이지은(유모) 외 부산무용협회 회원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 문 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 제 19회 알로이시오 관현악단 자선연주회

9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79년 창단,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는 알로이시오 관현악단(구. 부산소년의 집 관현악단)이 들려주는 자선연주회.

알로이시오 관현악단은 창단 그해 열린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현악부 우수, 제 31회 진주개천예술제 현악합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입상,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왔다.

1999년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장영주 독주회 앙코르부문 협연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알로이시오 관현악단은 2007년, 2008년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함께하는 소년의집 기금마련음악회를 가지기도 했다.

올해 무대는 보이싱싱어즈 멤버, 부산시립합창단 베이스 수석 최영수와 김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원희선이 협연한다.

### 프로그램

-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 한국민요/거문도 뱃노래
- Rolf Lovland/10월의 어느 멋진 날
-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3악장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 5번 등 수곡
- 지휘/안유경
- 협연/최영수(베이스), 원희선(바이올린)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부산소년의 집(256-3901, 010-9758-6838)



#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매력적인 음색과 순수한 감성을 지닌 테너 조윤환은 베를리너 심포니커와의 협연 무대에서 '카르멘의 호세 아리아에서 테너만의 빛나는 음색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였다'는 찬사를 받으며 유럽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바흐/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하이든/천지창조

볼프/아이헨도르프의 시 등 수곡

· 피아노/이승윤(부산시립합창단 반주자)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의 컨스틀러(02-584-5090)

## 독우회 제 39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연주회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독일에서 유학을 마친 독우회 회원 김문주, 고은경, 조혜영, 박영신, 정년경, 심경숙과 플루티스트 정옥경, 조진학,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 첼리스트 박현영 등이 멘델스존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실내악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멘델스존/안단테와 변주곡 작품 83a, 화려한 알레그로 작품 92, 한여름 밤의 꿈, 피아노 3중주 제 1번 작품 49 라단조 등

**연주**

김문주-고은경, 조혜영-박영신, 정년경, 심경숙(피아노), 정옥경, 조진학(플루트), 이장호(바이올린), 박현영(첼로)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소프라노 이은희 독창회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신라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안중양교회 지휘자, 부산하모니합창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이은희 독창회.

이은희는 그동안 FM 목요음악감상회, 김해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 발트무어교수 클래식음악회, 성가독창회 등의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하이든/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 'Nun beut die flur'

프랑크/생명의 양식

## 2009년 양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사업 뮤지컬 '가야여왕 허황옥' 찾아라, 떠나라, 창조하라

9월 30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2002년부터 허황후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업과 허황옥 축제, 관광 등을 개발해온 김해여성복지회가 2009년 양성평등 지역문화확산사업으로 선보이는 뮤지컬 '가야여왕 허황옥'.

김해여성복지회는 2008년 '가야여왕 허황옥' 뮤지컬을 제작하여 우수 양성평등문화 확산 콘텐츠 개발에 대한 문광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두 아들에게 제 성을 물려준 평등여성 허황옥과 페미니스트 김수로왕의 이야기로 오늘을 살아갈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바다에 도전해 사랑과 하나의 세계를 얻은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 외지인을 잘 받아들이는 원주민의 다문화적인 모습, 스스로를 닦아 권력투쟁을 줄인 칠불사의 일곱 왕자 모습 등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가치를 전해준다.

· 총감독, 원작/장정임

· 각색·연출/김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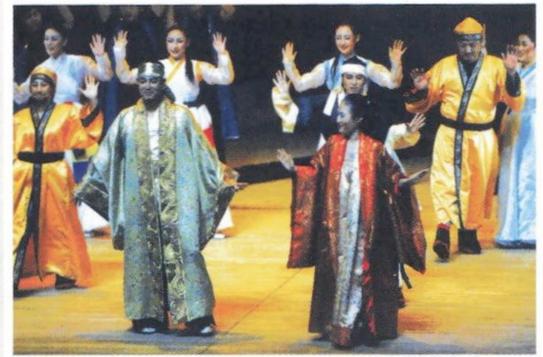
· 작곡/박규동

· 음악/이문형

· 안무/최선희

■ 관람료 20,000원(단체 15,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김해여성복지회 (055-339-1900, 010-2865-7221)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3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 드보르작'

9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가을의 길목에 새롭게 만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3회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절대음악을 바탕으로 17~18세기 합주협주곡의 부활을 꿈꾼 브람스의 작품과 보헤미아의 민속 음악을 사용하여 체코 민족주의 음악을 발전시킨 드보르작의 작품을 통해 낭만주의시대의 두 작품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한 첼리스트 유대연이 고전 형식에 신선한 예술미와 새로운 기교를 더해 연주자들에게 뛰어난 기교와 환상적인 호흡을 요하는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을 협연한다.

**프로그램**

브람스/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가단조 작품 102  
드보르작/교향곡 제 9번 마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신상준(바이올린 · 인제대 교수), 유대연(첼로 · 인제대 겸임교수)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지휘 이동신

바이올린 신상준

첼로 유대연

장진숙/가장 빛난 별,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등 수곡  
· 피아노/윤지영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이은희(010-4576-5945)

## 부산예술제 2009 여니춤 축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부산예술제 2009년 행사 일환으로 펼쳐지는 여니춤축제.

우리 춤을 배우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배운 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

### 프로그램

양태순 무용단(지도/양태순)-살풀이  
양태순 무용단(지도/양태순)-축원무  
중구노인복지관(지도/하선주)-화선무  
우리춤사랑 연구회(지도/윤정미)-즉흥무  
조영선 무용단(지도/조영선)-연화무  
부산사회체육센터 늘솔교육원(지도/노인숙)-장수 우리춤

- 관람료 무료
- 문 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 부산색소폰콰이어 제 4회 정기연주회

9월 20일 일요일 오후 6:30 중극장



2006년 색소폰 전공자와 색소폰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색소폰 선율을 이웃에 전하고 봉사하기 위해 창단된 색소폰동호회 부산색소폰콰이어 제 4회 정기연주회.

부산색소폰콰이어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 찾아가는 음악회 및 요양 시설 방문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Japanese Graffiti XII, Lassrs Trombone(트롬본 솔로/유상미), Spanish Fever, Pirates of the

Caribbean, 색소폰 4중주 Spain 등 수곡

- 관람료 무료
- 문 의 이천우(010-2767-2141)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5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차세대 음악가를 꿈꾸는 청소년 유망주들의 등용문으로 각광받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오디션을 거친 유망주들이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 프로그램

시벨리우스/바이올린협주곡 라단조 작품 47 중 제 1악장  
크레스톤/마림바 소협주곡 중 제 3악장  
탈로/스페인 교향곡 라단조 작품 21 중 제 1악장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 2번 중 제 3악장  
슈만/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54 중 제 1악장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중 제 1악장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협연/황고은(바이올린 · 부산예고 2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김영지(바이올린 · 부산예중 1년), 공귀주(바이올린 · 부산예고 2년), 김민경(바이올린 · 부산예고 3년) 손은혜(바이올린 · 부산대 4년), 변예슬(플루트 · 부산대 4년), 이일순(마림바 · 브니엘예고 3년), 박용희(피아노, 부산예고 2년)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독창회

9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관객을 압도하는 연기력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카르멘으로 격찬 받아온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부산독창회.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베스까라 'Luisa D'annunzio' 국립음악원을 최고점으로 졸업한 김정화는 1994년 귀국 후 첫 데뷔 오페라인 박쥐의 오를로프스키(Orlofsky)역을 맡아 연출을 맡았던

세계 5대 연출가 중 한사람인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의 헤르츨(HERZL) 감독에게 "40년 오페라 연출 생활 중 최고의 오를로프스키(Orlofsky)를 비로소 찾았다"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 프로그램

스카를라티/이미 해가 간지스강에서, 나는 괴로움으로 넘쳐, 오 나를 괴롭히지 마오

토스티/귀여운 입

구노/아베마리아

프랑크/생명의 양식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독백과 아리아 '하바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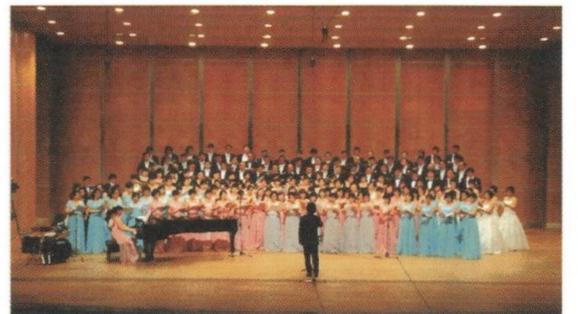
'세기디야' '집시의 노래' 등 수곡

· 피아노/신소연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정화(017-507-4752)

## 제 4회 대한민국 교사합창제

9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심미안을 심어주기 위해 음악교육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온 전국의 교사합창단이 함께 마련하는 대한민국 교사합창제.

대한민국 교사합창제는 2006년 서울에서 열린 제 1회 대한민국 교사합창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교사합창단, 서울음악교사합창단, 전북중등음악교원합창단, 대전교사합창단, 대구중등교사합창단 등이 참가한다.

· 예술감독/김강규

- 관람료 무료
- 문 의 이성환(010-7294-5088)

## 소프라노 박수진 귀국 독창회

9월 26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쾰른음대 성악과 최고연주자 과정인 Konzert Examen 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박수진 독창회.

박수진은 1996년 '한국 청소년 성악경연대회(이대웅 콩쿠르)' 여자대학부 1위 수상을 비롯해 동아콩쿠르, 중앙콩쿠르 입상, 2006년 Feruccio Tagliavini 국제콩쿠르 입상 및 청중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Motet 'Exsultate Jubilate'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이름'  
틀리브/오페라 '라크메' 중 '종의 노래' 등 수곡  
· 반주/이소영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에스엠기획(442-6500)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 부산공연

9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한국전력과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오케스트라인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희망, 사랑 나눔콘서트' 부산공연.

러시아프로코피예프 국제지휘콩쿠르 3rd Prize, 수원국제지휘콩쿠르 Special Prize, 프랑스 부장송 국제지휘콩쿠르, 멕시코 마타국제지휘콩쿠르오케스트라가 뽑은 지휘자상을 수상한 여성 지휘자 여자경이 지휘하고 KBS클래식 FM '생생 클래식'의 진행자인 장일범의 맛갈스러운 해설이 함께 펼쳐진다.

### 프로그램

롯데/윌리엄 텔 서곡

리스트/헝가리 환상곡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간주곡, '애 그이었던가', '그녀 없이는 행복도 없네', '파리를 떠나', '축배의 노래' 등 수곡

- 지휘/여자경 · 해설/장일범
- 소프라노/김경희 · 테너/조윤환 · 피아노/박미성

■ 관람료 무료

■ 문의 (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031-392-6419, 392-6429, www.primphil.net)

## 향사회 창립 35주년 기념음악회 창작합창의 밤

9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74년 우리나라 작곡음악계 2세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이상근(1922-2000)과 그의 제자 하오주, 박봉렬, 최인식, 김종태, 강기성, 김동조 등으로 출발한 향사회는 창립이후 부산을 대표하는 현대음악작곡가 협회로 가곡, 실내악곡, 합창곡, 관현악곡에 이르는 다양한 창작음악을 발표해왔다.

창작 합창음악의 밤으로 다양한 합창음악을 발표한다.

### 프로그램

제갈삼/피아노와 합창을 위한 elegy  
김종태/숨을 거두시다- 칸타타 '부활' 중에서  
최인식/태종대 저녁 바다  
홍영지/팔색조-승무와 강강술래를 위하여-  
김성덕/땅의 꿈  
양성남/미사  
하순봉/한라산 겨울  
진영민(초청작곡가)/바람개비  
· 연주/부산시립합창단(지휘/김강규)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유미숙(011-488-6467)  
이규봉(016-337-6892)

## 제 21회 향천회 작품발표회

9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82년 부산의 창작음악발전을 위해 작곡가 정원상 교수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향천회의 정기 작품 발표회.

### 프로그램

정원상/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추억'  
임우상/Piccolo 와 Bassoon을 위한 '對話'  
윤해중/현악 합주를 위한 '哀歌'  
김동학/Orchestra 를 위한 '海松'  
백승태/현악 합주를 위한 'Wind' 등 수곡  
· 연주/부산시티오케스트라(지휘/박성은), 정혜영(바이올린)

■ 관람료 초대

■ 문의 백승태(010-4154-1403)

## 테너 곽성섭 독창회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태리 국립음악원을 만점으로 졸업하고 귀국 후 마에스트로 곽승에게 발탁되어 20여 차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는 테너 곽성섭 독창회.

2007년 4회에 걸쳐 협연한 '까르미나 부라나'와 윤이상 칸타타 무대에 이어 3년 만에 갖는 이번 무대에서는 완숙하고 아름다운 A te, o cara, 여자의 마음, 공주는 잠 못 이루고, Spirto gentil 등 오페라 아리아와 간쫂네, 한국민요, 성 가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곽성섭(010-2655-6105)

#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가능합니다.  
(100~1000)

### 음악

####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 ■1일 六竹花(육죽화)

여섯개의 대나무가 피어나다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으로 있는 대금주자 손지연, 허유진, 구슬, 황혜정, 오교선, 신희재가 들려주는 대금 앙상블 무대.

##### ■8일 김진홍이 펼치는 춤 그 대물림의 향기



부산을 대표하는 한국춤계의 원로 김진홍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 부산시무형문화재 제 14호 동래한량춤 보유자로, 지난해 제 7회 부산예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진홍과 그의 아들 김갑용을 비롯해 김은경, 윤여숙 모녀, 엄옥자, 변지연 모녀 등 대를 이어 우리 전통춤의 맥을 잇고 있는 예인가족이 함께 출연한다.

##### 프로그램

동래한량무, 원향살풀이춤, 태평무, 동래입춤, 강태홍류 산조춤, 승무, 이야기 지전춤, 오고무

##### ■15일 정은혜의 세번째 가사 시리즈 '정은혜 흥보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젊은 소리꾼 정은혜의 '흥보가'.

판소리 다섯바탕을 가사 시리즈로 무대화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정은혜는 2001년 춘향가, 2008년 심청가에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흥보가를 들려준다.

##### ■22일 일파가야금합주단 공연



1996년 장혜숙 단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의 가야금 전공자들로 창단한 일파가야금합주단의 무대.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1일 피아니스트 김정화 독주회

숙명여자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보스턴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기교'로 호평받아온 피아니스트 김정화 독주회.

##### ■8일 3 for 1 '세계의 악기 하나의 음악'

가야금 연주자 백시내, 해금 연주자 윤해승, 클래식기타리스트 곽승웅, 신성진이 들려주는 색다른 앙상블 무대.

##### ■15일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4

'투란도트'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주요 아리아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 출연/구현진(투란도트), 이민희(류), 장진규(칼리프)  
· 피아노/이승윤 · 해설/장진규

##### ■22일 부산색소폰필하모니합주단 창단 5주년 기념연주회

직장인들로 결성된 순수아마추어 색소폰합주단인 부산색소폰필하모니합주단이 창단 5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 지휘/방준모(단장) · 찬조출연/목신팬플룻앙상블

##### ■29일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

초청연주회



부산지역 국악연주자들을 중심으로 2004년 창단한 부산 유일의 민간국악관현악단 '여운'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초청무대.

· 지휘/홍희철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가톨릭센터(441-3788)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2일 부산거문고악회 '心琴을 울리다'

지난 3월 부산대학교 권은영 교수를 주축으로 부

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문고연주자와 부산대학교 국악과 재학생, 동호인들로 결성된 부산거문고악회 무대.

##### ■9일 트리오 탈리아 창단 7주년 기념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김이정, 첼리스트 이숙정, 피아니스트 오윤주로 구성된 트리오 탈리아가 창단 7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하이든 서거 200주기를 맞아 멘델스존과 하이든, 브람스 등 전통적인 색채가 강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 ■16일 피아니스트 김성숙 · 안준희의 듀오음악의 세계 'Dance, Dance, Dance'

피아니스트 김성숙과 안준희가 마련하는 프로젝트 콘서트 두 번째 무대로 모슈코프스키, 그리그, 브람스, 드보르작의 무곡(舞曲)을 들려준다.

##### ■23일 백재진 바이올린 독주회



동의대학교 교수, 비루투오조앙상블 리더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독주회.

프랑스의 대작곡가 프랑크와 그의 제자로 '벨기에의 모차르트'라 불리는 천재 작곡가 기욤 리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들려준다.

##### ■30일 문영미 바이올린 독주회

경희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음대 석사과정, 로스톡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문영미 독주회.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무대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 ■3일 클래식기타 & 피아노 듀오콘서트



박종석 박미옥

기타리스트 박종석과 피아니스트 박미옥의 앙상블로 들려주는 듀오무대.

### ■10일 벨리시미와 함께하는

#### '영화속의 오페라와 뮤지컬'

신라대학교 성악전공 동문 모임인 벨리시미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넘버를 들려준다.

· 출연/이은미, 이윤순, 장은영(이상 소프라노), 성미진 (메조소프라노), 최성근(피아노)

### ■17일 국악과 클래식기타의 만남

클래식기타리스트 곽승웅, 신성진과 가야금연주자 백시내, 해금연주자 윤해승이 함께하는 국악과 클래식기타의 만남.

### ■24일 가을에 듣는 바로크음악

리코더연주자 김수진과 챔발로연주자 박지영과 함께 떠나는 바로크음악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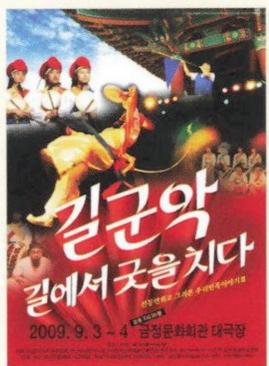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전통연희로 그려본 우리민족이야기III 길군악-길에서 굿을 치다

9월 3일-4일 목-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풍물의 맥을 이어온 예인의 삶을 신명과 흥의 난장 풍물굿으로 풀어낸 남산놀이마당의 '길군악-길에서 굿을 치다'.

· 연출/장재희  
· 특별출연/남대우 M-note무용단, 힙합댄스팀

STEP CREW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 문의 남산놀이마당(516-4434, 010-0856-4434)

## 동익한의관현악단 DOMO 제 5회 정기연주회

9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익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익한의관현악단 DOMO의 5번째 정기연주회.

동익한의관현악단 DOMO는 2005년 9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이후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을 가져오고 있다.

· 지휘/정홍기(상임지휘자)

■ 관람료 무료

■ 문의 장은수(010-4588-0692)

##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 ■5일 프로그램

표정만방지곡 '상령산', 창작가곡 '산천초목', 진주 교방굿거리춤, 신(新)단가 '추억', 실내악 '들춤', 신푸리(이준호 곡), 실내악 '사랑굿(최상화 곡)', 포구락, 판굿과 소고춤

### ■12일 프로그램

취타 중 '절화', '길타령', '금전악', 태평소와 관현악, 승전무 중 '검무', 가야금병창 '수궁가' 중 '고고천변', 실내악 '신벚놀이(원일 곡)', 실내악 '팔도민요연

곡(이준호 곡)', 부채춤, 북모듬과 사물놀이

### ■19일 프로그램

보허자, 창작 판소리 '여성굿', 이매방류 '승무', 가야금 협주곡 '신아리랑(박위철 편곡)', 살풀이,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병주, 삼도설장구, 오고무

### ■26일 프로그램

천년만세, 무산향, 기악합주 '남도 굿거리', 학춤, 실내악 '가시버시 사랑(이병욱 곡)', '배 띄어라(박범훈 곡)', 실내악 '창부타령을 위한 피리 협주곡(박범훈 곡)', 향발무, 설장구를 위한 '모리(이경섭 곡)'

■ 관람료 A석 8,000원 · B석 6,000원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부산YMCA오케스트라 제 13회 정기연주회

9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8년 부산지역 중·고등학생들로 창단된 부산 YMCA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YMCA오케스트라는 2006년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장진을 상임지휘자로 영입한 후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과团员들의 연주역량 향상에 힘써왔다.

· 지휘/장진 · 협연/강지나(피아노), 정선화(트럼본)

■ 관람료 초대

■ 문의 장진(010-2980-0115)

## 책사랑54년 대형서점

지하1층~지상5층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과장아님)

국산/외국산 최상품 지구본 취급

▶국산:소·중·대·초대형·위성·지세·행정 20%할인  
▶외국산:세계 매출 최고 독일스텔라노바 소·중·대·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돌고, 한·영문 지명 선물 최고(교구용)

지도의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

★정부발행지도 지정판매처!

▶1:3000도 판매 각처의 사용 용도에 맞게 주문하는 크기로 연결코팅해 드림

▶관내도, 금융기관, 부동산업, 각업소 참고도면

▶건설, 유통업, 택배, 기타 작업체 필요부분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지번도면 확대축소

★전국사·도별, 전국교통관광, 국내외 관광책자

대형액자지도, 지구본 매장관람환영!

## 초지일관 · 양심경영

○ 해사도서전문 취급 및 출판 ○ 전국 최고의 종합지도센터

Since 1955



문우당서점

남해읍 지동리(지동) 1955년 10월 10일 창립

문의 051241-5555(내)

팩스 051241-5555(외)

부산광역시 중구 남대우동 69-1

18 아동, 유아, 잡지, 도서문화상품권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CGV 10%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 양경숙 해금독주회

9월 6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국악원 정악단 악장으로 있는 해금주자 양경숙 독주회.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으로 있는 거문고주자 홍선숙과 함께 '유초신지곡' 전 바탕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 의 양경숙(011-764-7237)

### 정성흡-Passion to Exotic Music World

9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예비학교, 줄리어드음대, 뉴욕주립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이리스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정성흡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14번 올림다단조 '월광'

슈베르트/즉흥환상곡 제 1번

피아졸라/탱고

· 우정출연/송용찬(아코디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이정하 소리 다섯 번째 마당

9월 9일 수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사)판소리보존연구회 부산지부장으로 있는 소리꾼 이정하의 다섯 번째 소리마당.

이정하는 그동안 판소리 '숙영낭자전' 부산초연무

대, 박녹주제 흥부전, 이정하 소리마당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민요와 판소리, 단가, 화선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사회/박호갑 · 특별출연/초해스님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이정하(254-6538, 011-581-3048)

### E.M.B 트리오 제 2회 정기연주회

9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6년 유럽에서 음악수업을 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성은, 피아니스트 정순화, 첼리스트 이재성으로 결성된 E.M.B(European Musician Busan)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트리오 Hob.XV 제 21번

드보르작/피아노 트리오 작품 26 등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성은(010-8549-8265)

### 김현숙, 이은미, 신정순 3 소프라노 리사이틀

9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김현숙

이은미

신정순

일본 동경대음대 및 동대학원,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현숙과 신라대학교와 이탈리아 노바라 G.Cantelli

국립음악원, 빠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를 졸업한 이은미, 동의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 음악대학원, 이탈리아 베아첸자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신정순 등 세 명의 소프라노가 펼치는 3인 3색 무대.

· 피아노/최성근 · 해설/김윤선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고봉수(010-4434-6605)

### 클로드 볼링 빅밴드 두 번째 내한공연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KBS부산홀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로 크로스오버 음악의 살아있는 거장으로 평가받는 클로드 볼링 빅밴드 두 번째 내한공연.

팝과 재즈, 클래식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음악의 창시자로, 그의 작품 '플루트와 재즈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은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 530주 동안 오르는 전설을 남기기도 했다.

· 게스트출연/닥터스빅밴드, 크로스노트, Mad J, Page One

■ 관람료 VIP 99,000원 · R석 77,000원

S석 66,000원 · A석 44,000원

A석 33,000원

■ 문 의 플랜제넷(02-839-2623)

### NEUES 첫 번째 연주회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아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작곡가모임 NEUES의 창단연주회.

동아대학교 박철홍 교수와 작곡가 권태우, 배심행, 임록 등 작곡가 4명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권태우/Null for solo Flute

배심행/In 7 days for Piano

임록/Reminiscence for Clarinet and Piano

박철홍/Switching BachII 등 수곡

· 연주/황남용, 최낙주, 김정민(플루트), 김진희, 강영만(피아노), 조영숙(바이올린), 임솔빈(비올라), 박준현, 박정렬(첼로), 이원기(클라리넷) 외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 관람료 초대
- 문 의 임록(010-9210-5547)

##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연의 밤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8년 12월 창단 후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연의 밤.

- 협연/왕성지(플루트), 황명원, 김민자, 김미현(피아노)

- 관람료 균일 10,000원(학생증 제시시 30% 할인)
- 문 의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7787-3086)

## 이영희 귀국 피아노 독주회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영희 귀국 독주회.

###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4번 라장조 BWV 828  
베토펜/피아노 소나타 제

31번 내림가장조 작품 110 등 수곡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박민선(010-5517-8231)

## 김은경, 정영주 2인음악회 tempo primo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예고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은경, 정영주 2인음악회.



김은경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중 오스트리아로 유학, 빈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Boesendorfer-stipendium을 수상했으며, 정영주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와 아렌스키의 곡을 들려준다.

- 문 의 정영주(010-8279-1151)

## 제 1101회 MBC목요음악회 앙상블 디 마레 초청음악회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2008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파트 연주자들로 결성된 '앙상블 디 마레' 초청 제 1101회 MBC목요음악회.

이태리어로 '바다'를 뜻하는 '디 마레'는 포근하면서도 잔잔한 바다의 화

음과 같은 실내악의 매력을 들려준다.

- 연주/이은옥, 권남희, 김영주, 민정화, 조양희, 강선덕, 최은정(이상 바이올린), 홍영선, 김상철, 신지현(이상 비올라), 김근아, 서송은(이상 첼로), 박정숙(더블베이스)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

## 제 17회 소리테 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1993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결성된 소리테 플루트 앙상블의 17번째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 드보르작/교향곡 '신세계로부터'
- 조플린/케스케이드
- 네케/크시코스의 우편마차 등 수곡
- 특별출연/테너 박병진, 푸르미 플루트앙상블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이경희(010-5580-7824)

## 오카리나마을 부산모임 제 9회 정기연주회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소극장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카리나동호회인 오카리나마을 부산모임이 마련하는 9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주제곡 및 동요, 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관람료 무료
- 문 의 이성현(010-5628-9091)

## 2009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하반기 정기연주회

9월 20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남성앙상블 특유의 넉넉함과 편안함, 드라마틱한 강력함과 화려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칸타빌레 남성앙상블의 정기무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녹음홀 · 연주홀

## GloVil Art Hall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빌아트홀 공동주최

### 제 8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특별시상: 부산광역시장상 부산대총장상

일시: 콩쿨 10월 10일 우수입상자연주회: 10월 25일

부문: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실용음악 국악

대상: 초·중·고·대·일반

접수: 9월 21일~10월 6일

과제곡: 자유곡 1곡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3동1243-21  
Tel. 051-505-5995 Fax. 051-505-5935  
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이번 무대에서는 청교도, 에프게니 오네긴, 토스카,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명작 오페라 속 아리아와 10월의 어느 멋진날, 남춘, 백학 등 국내외 가곡을 중후한 남성양상블로 들려준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안상철(010-2400-5271)

## The Bloom 피아노 콘서트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신라대학교 피아노전공 재학생들로 구성된 'The Bloom' 무대로, 피아노 솔로와 듀오연주를 들려준다.  
· 연주/권자연, 김윤혜, 목영지, 방수옥, 이수현

- 관람료 초대
- 문의 권자연(010-3122-2327)

## 2009 테너 오동주 콘서트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루이저 단눈치오 국립음악원, 페스까라 국립아카데미 오페라 연기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기획담당, 이태리음악연구회 회원, 남성성악양상블 4+1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오동주 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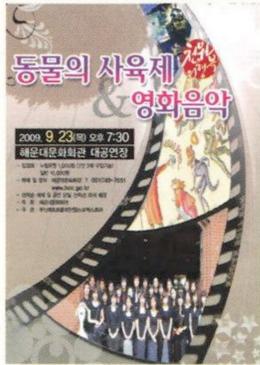
오동주는 그동안 8차례 독창회를 비롯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모세, 팔레아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주역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 특별출연/소프라노 신용희 · 피아노/이승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오동주(010-4556-5058)

## 동물의 사육제 & 영화음악

9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주는 크로스오버 무대.

생상의 위트넘치는 관현악모음곡 '동물의 사육제'와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음악을 들려준다.

· 지휘/김병수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문금자의 정가 세 번째 무대 12가사 전곡 연주회

9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 가사 이수자이자 한국소년소녀정가단 단장으로 있는 문금자의 12가사 전곡연주회.

개인연주자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12가사 전곡연주회 중 첫 번째 무대로 백구사, 상사별곡, 수양산가

전곡을 들려준다.  
· 반주/풍류송아

- 관람료 일반 5,000원 · 학생 2,000원
- 문의 문금자(019-559-6119)

## 부산작곡마당 제 4회 정기연주회

9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6년 창단 후 창작곡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부산작곡마당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여행'을 주제로 한 창작합창곡과 가곡, 국악실내악, 가요,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신동일/빈집

이용주/윤동주에게 보내는 편지

백현주/구월이 오면

김정진/실내악 '쓸쓸한 나의 행복' 등 수록

· 작곡/신동일, 오세일, 이용주, 백현주, 홍수정, 김한나, 김정진, 정보형, 홍광현

· 출연/부산하모니합창단

- 관람료 초대
- 문의 백현주(070-8200-1009)

## 지역 주민과 부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제 21회 행복음악회

9월 27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관객들이 자율적으로 낸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 관람료 자율 이웃돕기 성금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최정운 피아노 귀국 독주회

9월 27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석사), 메릴랜드대학교 음악과(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최정운 독주회.

### 프로그램

쇼팽/4개의 스케르초 제 1번~ 4번

하이든/소나타 다장조 Hoboken XVI:48

칼 바인/소나타 제 1번

- 관람료 초대
- 문의 최정운(010-7576-3306)

## 향사회 창립 35주년 기념음악회

9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연극 >>

부산 현대창작음악의 대표적 작곡가 동인단체인 향사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기념음악회.

제 2회 향사회작곡콩쿠르 대상수상자인 이소의를 비롯해 권유미, 김정욱, 김도희, 임록, 배행심, 전욱영 등 신입회원들과 초청작곡가 김인철의 창작실내악곡으로 마련된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사무국장 이규봉(016-337-6892)

## 유니스 콰르텟 가을 정기 연주회

9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2007년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엄세희, 비올리스트 김가영, 첼리스트 유대연으로 결성된 유니스 콰르텟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슈베르트/현악4중주 다단조  
베토벤/대푸가 내림나장조

작품 133 등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15,000원
- 문의 김태환(010-5417-2367)

## 제 2회 미즈챔버콰이어 정기 연주회

9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Ms. Chamber Choir*



부산국제합창제 입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여성앙상블 '미즈챔버콰이어'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브리튼의 정통 클래식합창 'Ceremony of Carols'에서부터 영화음악 '캐리비언의 해적', 춤과 함께하는 뮤지컬 '맘마미아', 팝송,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정환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이찬미(010-2595-8425)

## 테너 손정희 독창회

9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현재 벨리시모 오페라 앙상블 대표, 국립 안동대 음악과 외래교수로 있는 드라마틱 테너 손정희 독창회.

이탈리아 오토리노 레스피기 국립음악원을 최고점으로 졸업한 손정희는 지난 4월 대구시립오페라단 오페라 '오텔로' 주역으로 무대에 섰다.

**프로그램**  
토스티/기도, 이상, 세레나데  
김동환/그리운 마음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등 수곡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 문의 이정환(010-5128-3190)

## 연극

### 연극 그남자 그여자

3월 6일(금)-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운명적 만남에서 핑크빛 사랑과 쓰라린 이별, 그리고 아련한 추억까지 달콤쌉싸름한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연극 '그남자 그여자'.

- 관람료 일반 25,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7월 29일(수)-9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사랑과혁명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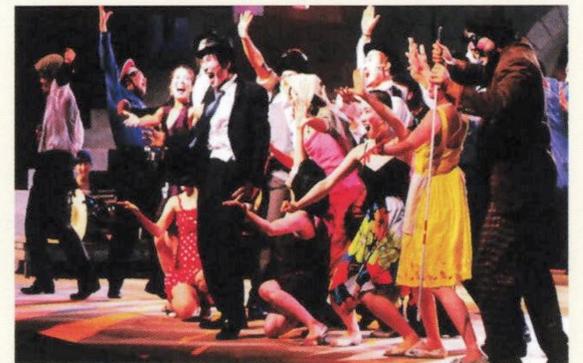


만화에서나 나올듯한 의성어, 의태어로 상황을 표현하고 아카펠라와 탭댄스만으로 음악이 완성되는 독특한 발상의 창작뮤지컬 '두근두근'.  
· 작/정세혁  
· 연출/김애자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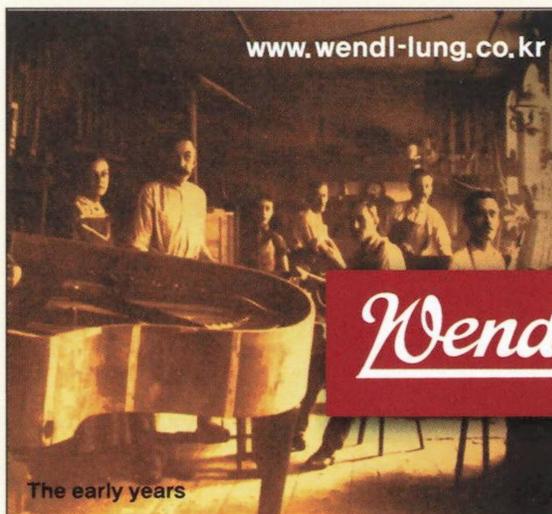
## 가마골소극장 개관 23주년 기념공연 탈선춘향전

8월 12일(수)-9월 4일(금)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우리의 고전 '춘향전'을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한 전통 패러디 연극 '탈선춘향전'.

가진 자에 대한 아유와 조롱은 방자를 통해, 가부장적 남성사회에 대한 저항은 춘향의 욕설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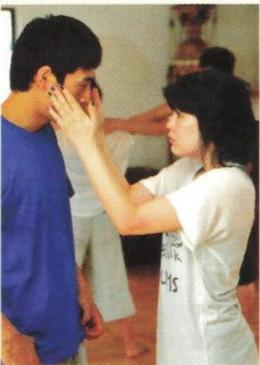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연극 >>

- 원작/이주홍 · 재구성, 극본/박성환, 이윤택
- 연출/이윤택
- 출연/김미숙, 한상민, 신주연, 배보람, 이동준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868-5955)

## 밴드래기 이야기

8월 14일(금)-9월 5일(토)  
오후 8:00(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6번출구



제 1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연극 '밴드래기 이야기'.  
장독뚜껑인 밴드래기를 아기로 아는 주인공 흥순의 성장기를 한 편의 동화 같은 서정적인 감성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 문 의 소극장 6번출구(625-2117)

## 창작뮤지컬 Love is... 세 번째 이야기 결혼한 타인, 결혼안한 연인

8월 18일(화)-9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첫 눈에 반해 결혼한 커플과 우정인지 사랑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서로를 애타게 바라만 보는 연인의 서로 다른 사랑의 모습을 그린 로맨틱 코믹뮤지컬.

- 작, 연출/김만중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 행복을 굽는 헨젤과 그레텔

8월 19일(수)-9월 13일(일) 주말 오후 2:00(평일은 단체관람) 공간소극장

사랑이 넘치는 헨젤과 그레텔 가족의 사랑으로 나쁜 숲속 마녀가 착한 마녀가 된다는 따뜻한 감동이

- 있는 가족뮤지컬.
- 작/전상배 · 연출/김만중
  - 관람료 12,000원(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 뮤지컬 락시(樂時)터-즐거운 시절

8월 21일(금)-9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성격과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두 남자가 낚시터에서 만나 겪게되는 다양한 인간군상과의 헤프닝을 통해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린 뮤지컬 '락시터'.  
· 작, 연출/위성신 · 작사, 작곡/강민호  
· 출연/강민호, 오종훈, 이봉련, 오익식

-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 2009 소극장 프로젝트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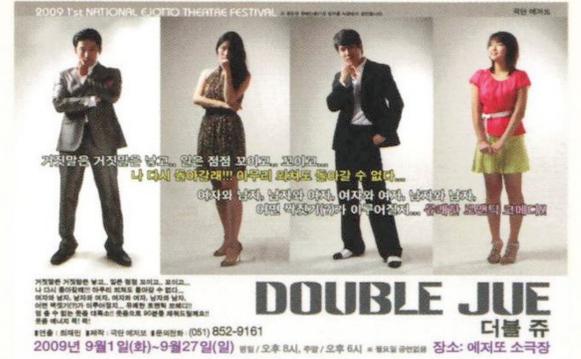
9월 1일(화)-12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 7:30 열린소극장

유희성 짙은 놀이와 극적 긴장감으로 웃지 못할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표현한 연극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 작/김지용 · 연출/오정국
- 출연/박상규, 김혜정, 양진철, 조재호
- 문 의 열린소극장(554-5244)

## 2009 전국 에저또소극장 페스티벌 극단 에저또 더블 쥬

9월 1일(화)-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에저또 소극장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 광주, 창원 3개지역 소극장이 함께 하는 2009 썸머 소극장 페스티벌.

극단 에저또의 '더블 쥬'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펼쳐지는 멈출 수 없는 폭소 로맨틱극이다.

-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김상호, 김지연, 김지오, 유정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 문 의 극단 에저또(852-9161)

## 구민주 모노드라마 영순아 어디가니

9월 2일(수)-2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자살증후군에 걸린 한 여자의 일상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연극 '영순아 어디가니'.

부산연극제에서 최우수 여자연기상과 우수 여자연기상을 수상하고 현재 미리내소극장 대표로 있는

배우 구민주가 열연을 펼친다.

- 작/이훈주 · 연출/호민
- 관람료 일 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청소년 15,000원
- 문 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 창작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

9월 3일(목)-10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10/2일 오후 3:00, 10/3일,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인 엄마와 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따뜻한 감동과 유쾌한 웃음으로 그려낸 창작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연극 >>



· 연출/오미영 · 작곡/노선락  
· 출연/김지선, 김소진, 김명준, 최영준

- 관람료 균일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극단 자갈치 창작마당극 영도다리

9월 4일(금)-2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극단 자갈치 소극장



1934년 개통 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비극, 산업화와 민주화의 질곡 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영도다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과거와 현재를 해학과 풍자로 그려낸 창작마당극 '영도다리'.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극단 자갈치(515-7315)

## 극단 61 늙은 부부 이야기

9월 8일-11일 화-금요일 오후 7:30  
12일 토요일 오후 3:00, 6:00 동주대학 소극장



첫사랑보다 아름다운 노년의 마지막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 작/위성신 · 연출/허영길  
· 출연/김병락, 정행심

-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10,000원)
- 문의 최인호(010-390-1319)

## 제1회 가마골소극장 젊은 연출가전 방바닥 굽는 남자

9월 8일(화)-9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젊은 연출가 4인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가마골소극장 젊은연출가전 첫 번째 무대.

가마골소극장 대표로 있는 연출가 이윤주가 사회로부터 도태된 주인공들을 통해 세상을 풍자하는 연극 '방바닥 굽는 남자'를 연출로 선보인다.

· 작/김지훈 · 연출/이윤주  
· 출연/홍민수, 김철영, 조승희, 김호윤, 김지현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의 가마골소극장(868-5955)

## 2009 점프 부산

9월 10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공  
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 어린이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20, 11:20, 오후  
3:00,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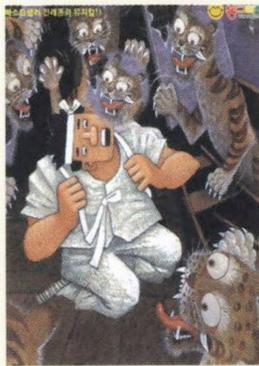
야수가 된 왕자와 벨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화려한 무대와 감성적인 선율 속에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연출/신재호  
· 출연/최문정, 이명덕, 김인득, 이성주, 김오준 외

- 관람료 균일 25,000원(예매시 10,000원 할인)
- 문의 (주)하늘극단(1588-3828)

## 밤벌레장군과 꼬리잘린 호랑이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13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힘은 없지만 지혜와 용기를 갖춘 밤벌레장군의 모험이 흥겨운 사물장단 속에 펼쳐지는 어린이뮤지컬.

· 작, 연출/오계영  
· 출연/송판수, 오계영, 조일영, 김미화, 안진희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 부두연극단 위트(Wit)

9월 15일(화)-30일(수)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부산에서 초연되는 연극 '위트'는 암에 걸린 영문학자 주인공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환자들을 인간으로 대하기보다 연구대상으로만 여기는 의사들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되돌아보며 삶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연극 >>

· 원작/마가렛 에드슨 · 재구성, 연출/이성규  
· 출연/안성혜, 김미경, 손남숙, 박훈영, 전승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전화, 인터넷 예매시 5,000원 할인)

■ 문의 액터스소극장(611-6616)

## 민들레 바람되어

9월 17일(목)-27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신세계문화홀



평범한 남자 '안중기'의 일생을 통한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낸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

배우 안내상, 조재현, 정웅인이 주인공 '안중기' 역을 맡아 3인 3색 연기를 펼친다.

· 작/박춘근 · 연출/김낙형  
· 출연/안내상, 조재현, 정웅인(교차출연), 이지하, 김상규, 황영희

■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 문의 숨엔터테인먼트(1588-8477)

## 뮤지컬 빨래

9월 18일(금)-20일(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창작뮤지컬 '빨래'.

만능엔터테이너 임창정과 부산출신의 뮤지컬배우 박정표가 순진한 몽골청년 '솔롱고' 역을 맡아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 작, 연출/추민주  
· 출연/임창정, 박정표, 조선명, 이정은, 이승희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MBC(760-1357)

## 부산예술제 2009 창작극 엘리스(Ellis)

9월 22일-24일 화-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세기말 혼란의 시대에 살아남은 두 남녀의 일상과 고독, 미래에 대한 갈망을 그린 창작극 '엘리스'.

· 작, 연출/강태욱  
· 출연/김학준, 서성원, 김현진, 오영섭, 손안모, 신원준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단체 20인 이상 8,000원)  
■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 연희단거리매 셰익스피어극1 햄릿

9월 23일(수)-9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1996년 초연 당시 원전의 작품성을 유지하면서도 연출의 독창적인 해석과 무대구성, 폭발적인 연기로 한국적 셰익스피어 공연양식을 선보인 연극 '햄릿'.

· 작/셰익스피어  
· 연출/이윤택  
· 출연/윤정섭, 이승현, 김소희, 유병훈, 염순식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의 가마골소극장(868-5955)

## 연극 환상동화

9월 25일(금)-10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10/2일 오후 3:00, 10/3일 ·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무용과 음악, 마임,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창작극 '환상동화'.

사랑, 전쟁, 예술을 이야기하는 세 명의 광대가 소리를 잃어버린 음악가와 눈을 잃어버린 무용수의 감



동적인 사랑이야기를 들려준다.

· 작, 연출/김동연  
· 출연/성종완, 이현철, 송삼동, 문경태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부산예술제 2009 부산-후쿠오카 문화교류 흥가에 별들어라

9월 2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27일 일요일 오후 4:00 시민회관 소극장



30년 전 단 하루밤에 일어난 7건의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흥가의 주인이었던 남부자 귀신과 생사를 걸고 벌이는 숨막히는 내기판 연극 '흥가에 별들어라'.

· 작/이해제 · 연출/이정남  
· 출연/고인범, 허종오, 심미란, 김우진, 조다끼 마사히로, 켄카이 스바키, 츠보우치 신지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단체 20인 이상 8,000원)  
■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 연극 너무 놀라지 마라

9월 26일(토)-10월 2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서민 가정의 삶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들여다보는 연극 '너무 놀라지 마라'는 2009년 부산연극제 개막작으로 화제를 모았다.

· 작/박근형 · 연출/김만중  
· 출연/이현식, 김진욱, 홍승이, 김하영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 무용

### 동국예술기획 창립 20주년 기념 제 68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9월 3일-4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최선 '호남살풀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들이 출연, 아름다운 우리춤의 멋을 선보이는 '한국의 명인명무전'.

#### ■ 3일 프로그램

입수건춤(허순선 · 광주대학교 수), 양산학춤(박계현 · 준인간문화재), 진쇠무(오은희 · 서울예술대학 교수),

진도북춤(염현주 · 대불대 교수), 원향지무(김윤옥 · 반여고교 교사), 지전춤(장인숙 · 동아대 겸임교수), 원향살풀이춤(김해성 · 부산여자대학 교수), 파라문(황경숙 · 남서울대학 사회교육원 전임교수), 승무(변지연 · 부산대 출강)

#### ■ 4일 프로그램

시나위입춤(안춘자 · 용산예총 민속무용협회장), 김보남류 수건춤(신관철 · 정읍사시립가무단 안무장 역임), 산조무(이길주 · 원광대 교수), 이매방류 살풀이춤(정명숙 · 준인간문화재), 태평무(홍진희 · 태평무 이수자), 호남살풀이춤(최선 · 인간문화재), 훈령무(송준영 · 조선대 명예교수), 원향살풀이춤(엄옥자 · 국립부산국악원 무용예술감독, 인간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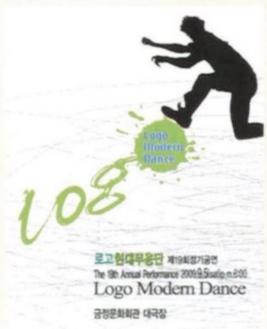
· 해설/이병욱(용인대 교수, 무용평론가)  
· 연출, 기획/박동국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10,000원

■ **문의** 동국예술기획 박동국(02-2278-5452, 011-223-0022)

### 로고현대무용단 제 19회 정기공연

9월 5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현대무용 전공자들로 구성된 로고현대무용단 정기공연.

#### 작품

백설공주는 이빠야 한대(안무/김보배)  
거울보기(안무/김현희)  
오아시스(안무/윤경호)

가장 흔한 기억(안무/이가현)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현희(010-8512-1300)

### 조영미 현대무용단 두 번째 춤 이야기 꽃이 그녀를 흔들다

9월 9일 수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사랑이 빚어내는 다양한 욕망의 현상을 춤으로 표현한 조영미 현대무용단 '꽃이 그녀를 흔들다'.

억압된 욕망에서 발생하는 공포와 긴장, 불안 그리고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욕망의 핵심인 에로스에 이르는 과정을 솔로와 듀엣, 군무로 보여준다.

· 예술감독/민병욱(부산대학교 교수)  
· 안무/조영미(현대무용단 주-교 대표)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 **문의** 조영미(010-5362-6386)

### 제 19회 그랑발레 정기공연 멀티미디어 시대 - 사람과 미디어, 사람과 사람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991년 경성대학교 발레전공자들로 결성된 그랑발레의 19번째 정기공연. 멀티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인간상을 춤으로 표현한 5편의 창작춤을 선보인다.

#### 작품

조명효과(안무/최연순)

흔적(안무/서지연)

누가 우리 지휘자를 옮겨놨을까?(안무/김유진, 조은비)

향기(안무/정미경)

꿈꾸다(안무/최소정)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최연순(010-6633-8227)

### 테마가 있는 무용공연 舞-3 [제천무]

9월 15일-18일 화-금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고대의 제천행사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개인의 무한의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테마가 있는 무용 '제천무'.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의** Magic Castle(647-7889)

### 2009 임현미의 춤 물밑소리-얼쑤!

9월 23일 수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9 댄스비전 안무가상 수상, 2009 부산생명춤 페스티벌 예술감독 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춤패 연분 흥 예술감독 임현미의 2009년 무대. 성장통에 대한 성찰과 씩임,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억의 춤인 '물밑소리-얼쑤'를 선보인다.

- 안무/임현미
- 출연/김수현, 허종원, 김현진, 남대우, 조현배, 임현미
- 음악/남산놀이마당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의 원향미(010-2756-1962)

## 2009 윤여숙의 춤

9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3대째 우리 전통춤의 맥을 잇고 있는 춤꾼 윤여숙이 마련하는 2009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궁중정재인 '무산향'과 부산의 전통민속춤인 동래고무, 동래학춤, 절제된 기교와 화사한 멋이 일품인 강태

홍류 산조춤, 기운으로 생명을 잉태한 자연의 존재들과 그 생명 에너지의 신비로움을 정중동의 한국춤언어로 표현한 창작무 '파동' 등 다양한 춤을 선보인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윤여숙(011-865-6873)

## 제 5회 Random Art Project 작은방 현대춤 공연 안데르센의 초상

9월 29일 화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1년 창단 후 국내 최초 인터넷 실시간 공연(부산바다 TV협찬)을 비롯해 바다 위 바지선상 공연 등 새로운 창작시도로 관객과 만났던 Random Art Project 작은방의 다섯 번째 무대.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삶과 그의 동화를 모티브로, 작가의 사실적 삶과 내면을 표현하는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 관람료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 문의 진영아(010-2593-6658, 622-0017)

## 영화

###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지역순회상영 스페인영화제

9월 2일(수)-6일(일)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시간 홈페이지 cinema.piff.org 확인)

스페인 영화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감독들과 현재 주목받고 있는 신인감독의 작품을 통해 스페인 영화의 최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페인영화제.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로메르와의 가을

9월 8일(화)-27일(일) 시네마테크 부산  
(상영시간 홈페이지 cinema.piff.org 확인)

누벨바그 세대의 현존하는 거장이자 가장 사랑받는 프랑스 감독인 에릭 로메로의 대표작 19편이 소개되는 특별상영전 '로메르와의 가을'.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행사

### 볼쇼이 아이스쇼

9월 25일(금)-10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4:00  
(10/3일은 오후 6:00) 시민회관 대극장



세계선수권 및 유럽선수권을 석권한 세계 최고의 피겨스타들이 출연하는 볼쇼이 아이스쇼.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카르멘'을 비롯 '오페라의 유령', '캣츠' 하이라이트와 '지킬앤 하이드', '노틀담 드 파리' 등 뮤지컬 명작을 갈라쇼 형식으로 선보인다.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A석 50,000원
- 문의 편앤쇼엔터테인먼트(1544-3396)

## 전시

###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뜻밖의 일상사

7월 25일(토)-10월 4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8228)

### 백남준展

7월 30일(목)-9월 30일(수) 조현화랑 부산



미디어 아트 역사에 이름을 남긴 'W3', '나는 결코 비트겐슈타인을 읽지 않는다' 등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의 후기 대표작들이 전시된다.

- 문의 조현화랑 부산 (747-8853)

### 움직이는 해안선

8월 21일(금)-9월 6일(일) 오픈스페이스 배  
■ 문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 제 9회 우동민 도예전

8월 31일(월)-9월 5일(토) 동아대 석당갤러리  
■ 문의 우동민(010-2067-3870)

### 한지공예와 민화의 만남

9월 8일(화)-9월 13일(일) 갤러리영광  
5천년 전통의 숨결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한지에 현대의 실용성을 조화시킨 한지공예전.  
· 참여작가/김행덕, 김미숙, 이은하, 송미현  
■ 문의 갤러리영광(816-9500~4)

### 박경호 개인전

9월 15일(화)-9월 27일(일) 갤러리영광  
■ 문의 갤러리영광(816-9500~4)

# 오카리나로 만난 새로운 세상 오카리나양상블 오카마루



“우리가 연주하는 악기 오카리나와 산의 정상을 뜻하는 마루가 합쳐진 말로, 실력있는 연주단체가 되자는 회원들의 바람을 담은 이름입니다.”

투명하면서도 맑은 소리로 사랑받는 오카리나는 초보자라도 누구나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어 악기를 처음

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인기있는 악기이다. 2006년 10월 창단한 오카리나양상블 ‘오카마루’ 단원들 또한 연산1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에서 오카리나를 배운 아마추어 연주자들이다.

오카마루는 현재 오카리나 지도를 맡고 있는 연주자 김원희 씨와 김명애, 박명애, 이명자, 김훈, 박귀옥, 김재원, 전말순, 박정선, 신금호, 김정섭, 맹영희, 고사라 등 모두 13명의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카마루를 있게 한 숨은 주인공이기도 한 오카리나강사 김원희 씨는 2005년부터 연산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오카리나 강습을 가져오다 2006년 10월 온천천 가을축제 공연 출연을 계기로 양상블 오카마루를 결성하게 됐다.

“오카마루 단원들 대부분이 악기를 처음 접하는 50대 이상의 주부들입니다. 오카리나를 접하면서 음악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오카리나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오카마루 단원들은 그래서 매주 열리는 수업시간만큼은 빼놓지 않고 참석한다. 정규수업 외에도 첫째

주와 셋째주 화요일 격주로 양상블 모임을 따로 갖고 있다. 요즘은 10월 열리는 온천천 가을축제 공연을 앞두고 한여름 무더위도 잊은채 연주회 준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오카마루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애 씨는 단원들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다.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이 연주하던 오카리나 선율에 매력을 느껴오다 정년퇴임 후인 지난 2006년 오카마루와 인연을 맺으면서 처음 오카리나와 만났다. “오카리나의 아름다운 소리도 소리지만 들고 다니기 편하고 또 어느 곳에서나 연주할 수 있다는게 오카리나만의 매력이 아닐까”하는 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열고 모임장소를 흔쾌히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연산1동 주민자치센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가야동에 사는 단원 박귀옥 씨는 2007년 5월 오카마루와 처음 만났다. 이 곳에 오기 전 잠시 다른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오카리나교실을 다니기도 했으나 얼마못가 폐강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오카마루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다른 단원들에 비해 늦게 시작한 만큼 양상블 모임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팔을 다쳐 악기를 볼 수 없었던 때에도 출석만큼은 꼬박꼬박 했을 정도로 열성단원이다.

비슷한 시기에 입단한 김재원 씨 역시 입단할 당시만 하더라도 악보조차 볼 줄 모르던 초보자였다. 음악과 친해지기 위해 연습과 함께 음악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김재원 씨는 지도를 맡고 있는 김원희 씨도 인정할 만큼 오카리나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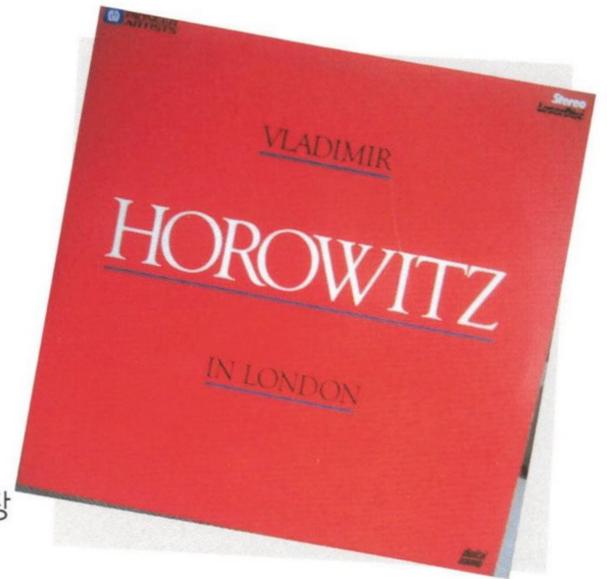
“연주활동을 시작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병원이나 복지관 등 어려운 우리이웃을 위한 무대에 꾸준히 서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을 찾아가는 음악봉사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카리나 ‘마루’를 향한 오카마루 회원 13명의 등정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글 정복엽)

■문의/오카리나양상블 오카마루 김원희(011-9534-139)

# Vladimir Horowitz in London

김 중 옥 부산교통공사 전동차 음악방송제작단장



블라디미르 호로비츠(1903. 10. 01~1989. 11. 5, 우크라이나 키예프 태생)는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6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레슨을 받기 시작해 12살에 키예프 음악원에 입학했습니다. 특히 스크리아빈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호로비츠는 평생에 걸쳐 스크리아빈의 음악을 즐겨 연주하면서 당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작품들은 상당수가 호로비츠 덕분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17세에 키예프 음악원을 졸업한 호로비츠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피아니스트로 데뷔했습니다. 키예프를 중심으로 작은 리사이틀을 가지던 그는 1922년 카르코프(우크라이나의 소도시, 전 러시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카르코브 필하모닉이 유명)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키예프와 모스크바에서도 명성을 얻게 됩니다. 당시 그는 1924년부터 25년에 걸쳐 23번의 리사이틀과 70여회의 콘서트를 갖는 등 초인적인 기량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독일로 건너간 첫 해인 1925년, 무명의 피아니스트로 세월을 보내던 호로비츠는 1926년 대리출연했던 연주회에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 1번을 연주, 호평을 받으면서 하룻밤에 유명해졌고, 이를 계기로 당시 최고의 흥행사에게 발탁되어 미국 데뷔 무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라는 먼 땅에서 건너온 청년 호로비츠는 압도적인 기교와 폭발하는 듯한 강렬한 터치, 명쾌하면서도 투명한 연주로 당시 미국의 평론가와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해인 1928년 토머스 비첨경과 함께한 뉴욕 데뷔연주는 그의 명성을 결정적으로 굳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당시 연주 프로그램 역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 1번이었습니다. 이어 1932년에는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뉴욕 필과 협연하게 되는 행운을 만났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듬해 토스카니니의 딸, 완다(Wanda Giorganina Toscanini, 1907~1998, 이태리)와 결혼해 1944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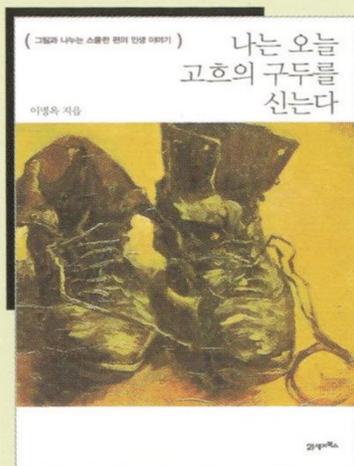
호로비츠는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고 거장의 자리에 올랐으나 이때부터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후 12년간 연주계를 떠나 있다가 1963년 다시 연주활동을 시작했는데, 1965년 4월 카네기홀에서 가진 그의 복귀연주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오늘날까지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1978년 1월, 미국 데뷔 50주년 기념으로 다시 카네기홀에서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뉴욕 필과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을 협연했던 호로비츠는 그해 2월 카터 대통령의 초대로 백악관에서 연주했으며, 1982년 5월에는 영국 황태자 및 왕립 오페라극장 후원으로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파이오니어 레이저 디스크 명인 연주를 하는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때 녹화, 녹음된 레이저 디스크가 이번호에 소개해드릴 애청 음반입니다. 이 음반은 1988년 추석 때 광복동에서 음반표지의 붉은 칼라에 매료되어 구입했습니다. 1982년 5월 찰스황태자 내외와 왕족이 참석한 로얄페스티벌 홀 연주로, 영국국가(國歌)에 이어 스칼라티의 6개 소나타, 쇼팽의 발라드, 슈만의 어린이 전경과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그리고 육성 인터뷰가 함께 편집된 116분 분량의 귀중하고 희귀한 영상물입니다.

이 후 1986년 호로비츠는 꿈에도 그리던 모스크바 연주와 미국에서 가진 링컨센터 연주를 마지막으로 1989년 11월 5일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녹음을 편집하던 중 갑작스런 심장발작으로 사망했습니다. 평소 부인에게 남긴 유언에 따라 호로비츠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토스카니니의 가족묘에 묻혔습니다.

덧붙여 20세기 최대의 피아노 거장이었던 호로비츠에게는 다음과 같은 좌우명이 있는데, ① 훈련과 연습을 통해 날카롭게 가다듬은 정신과 상상력 ② 억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 ③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기술 등 진정한 연주자가 되고 싶다면 이 세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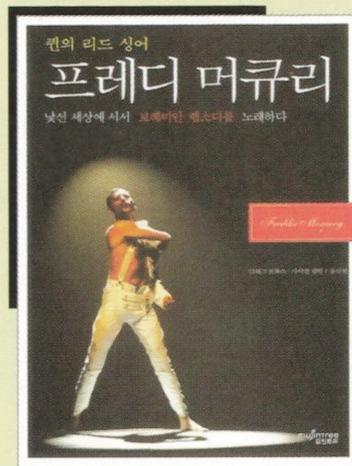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열정과 재치로 가득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피아노의 거장, 호로비츠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 나는 오늘 고희의 구두를 신는다

이명옥 지음  
21세기북스 / 351p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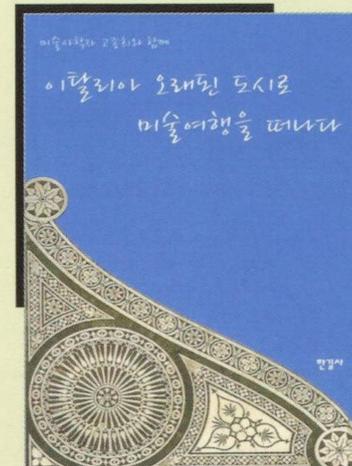
참신하고 새로운 기획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대중미술관으로 사랑받고 있는 '갤러리 사비나'의 이명옥 관장이 '그림 읽는 CEO' '팜므 파탈'에 이어 그림과 나누는 스물한 편의 인생이야기를 펴냈다. 고희는 삶의 여정을 흙 묻은 구두에 비유해서 그렸다. 1886년에 그려진 고희의 <구두 한 켤레>는 한 구두를 표현했을 뿐이지만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신발 주인이 겪었을 삶의 쓸쓸함과 고단함의 무게에 가슴이 아려온다. 고희의 <구두 한 켤레>는 그 어떤 유명한 말보다 인간에 대해, 그리고 삶의 고달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삶의 길에서 부닥치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병에서 회복되는 내일이면 그 고통도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라고 했던 고희의 말처럼,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구두를 신고 미지의 땅에 흔적을 남기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인생의 여러 모습과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는 그림을 통해 인생을 성찰하는 예술 에세이의 경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만약 마음을 사로잡는 그림을 보게 되면, 그 그림에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



## 프레디 머큐리

그레그 브룩스 · 사이먼 럽턴 지음,  
문신원 옮김 / 무진트리 / 343p / 15,000원

<We Will Rock You>의 리듬을 따라가다가 언젠가 심장이 터지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쯤 해본 적이 있는 락 그룹 <퀸>의 팬들이 반가워할 책이 나왔다. <퀸>의 리더 싱어로 야수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한 몸에 구현하고 있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육성으로 그들의 역사를 들여보자. 프레디 머큐리가 지난 20년 동안 응한 인터뷰와 그에 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구성한 책이다. 책의 내용은 모두 프레디 머큐리가 직접 한 말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의 생각들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데, 그가 쉽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퀸>이라는 밴드가 얼마나 자주 해체될 뻔했는지, 그러면서도 이들이 음악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열정으로 꾸준히 밴드를 지켜 온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자유와 열정으로 빛나는 록의 보헤미안, 삶을 사랑했고 노래를 사랑했던 영원한 로커, <퀸>의 리더 싱어, 프레디 머큐리의 입을 통해 직접 전하고 있기에 그의 솔직하고 진지한 내면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퀸>의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도 될 것이다.



## 이탈리아 오래된 도시로 미술여행을 떠나다

고종희 지음  
한길사 / 360p / 17,000원

미술사학자 고종희 씨의 예술 에세이. 한양여자 대학 조형일러스트레이션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오랜 유학생함과 수차례의 이탈리아 여행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 책은 이론과 체험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탈리아는 오랜 세월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않고 지방분권체제를 유지해온 덕분에 작은 도시들도 저마다의 고유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저자는 이탈리아의 진가가 바로 이 '오래된'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에 있음을 이 책에서 주장한다. 로마, 밀라노, 베네치아같이 잘 알려진 도시부터 베로나, 파도바, 시에나 등 작은 도시들까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16개의 예술도시를 통해 미술사학자의 섬세한 안목으로 이탈리아 미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도시에 산재해 있는 오래전에 지어진 미술관과 교회를 중심으로 그 안에 전시된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을 들려주는 저자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이탈리아의 도시를 여행하면서 도시 곳곳에 숨어 있는 명소인 미술관과 교회에 둘러 작품을 하나하나 관람하는 듯한 느낌에 빠져든다. 겉으로는 여행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미술사 전공자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예술 에세이집이다.

## 부산시립예술단 국내외 초청공연 활발

- 부산시립합창단 9월 11일 제 1회 고양합창페스티벌 참가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9월 11일~12일 제 17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참가
- 부산시립무용단 9월 19일~21일 후쿠오카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식 참가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9월 15일 김해 'Youth Orchestra Festival 2009', 10월 3일~4일 'Acros Classic Festa' 참가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를 기념해 일본 공연을 갖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예술단이 가을 시작과 함께 고양과 대구, 김해, 일본 후쿠오카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다.

가장 먼저 공연 길에 오르는 부산시립합창단은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리는 제 1회 고양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한다.

고양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등 수도권 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등 전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9개의 시립합창단이 참가하는 고양합창페스티벌은 한국합창음악을 활성화시키고 고양시를 합창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부산시립합창단은 9월 11일 수석지휘자 김강규 지휘로 '주의 기도' '예수 나의 기쁨' 우리창작곡 자갈치의 아침(최석태곡), 두물머리(백현주곡), 영국과 미국의 합창음악 등을 들려줄 계획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9월 11일과 12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 17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에 참가한다. 올해는 서울, 부산, 과천, 성남, 순천, 대구, 창원, 군포,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전국 14개 도시 소년소녀합창단이 싱그러운 합창음악을 선사한다. 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9월 30일 정기연주회에 앞서 9월 15일 김해 'Youth Orchestra Festival 2009'에 참가, 이동신 수석지휘자 지휘, 신상준, 유대연 협연으로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드보르작 '교향곡 제 9번 신세계로부터'로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향연을 펼친다.

국내 공연 외에 시립무용단과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부산과 후쿠오카 우정의 해를 기념해 일본 후쿠오카 공연을 갖는다. 9월 19일 부산시립무용단은 수석안무자 홍기태를 비롯한 부산시립무용단 전단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후쿠오카 초청공연 길에 오른다.

일본 후쿠오카시 마린 멧세에서 열리는 '부산-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식 문화 행사에 참가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은 19일 조선통신사 우정의 밤(한일 문화교류 공연), 20일 친서교환식과 우정의 해 기념식, 21일 고후쿠마치에서 캐널시티까지 이어지는 조선통신사 퍼레이드에 참가, 우리 춤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은 주요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백두대간과 천하태평지무를 선보인다.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온 국토를 두들겨 일깨우는 땅의 울림, 북의 울림을 역동적인 북가락과 신명난 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역동적인 춤이 한 민족의 기백과 응지를 드러낸다. 천하태평지무는 전통적인 궁중무용의 미학을 최대한 살린 작품으로 다채롭고 화려한 춤사위를 그리며 이 시대의 천하태평을 기원하는 작품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9월 30일 정기연주회에 이어 10월 3일과 4일 아크로스 후쿠오카홀 주최로 열리는 '아크로스 클래식 페스타(Acros Classic Festa)'에 참가한다. 아크로스 클래식 페스타는 다양한 악기 체험과 연주, 유명연주자들의 공연, 워크숍, 세미나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프로젝트 페스티벌이다. 2009년 부산-후쿠오카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우정의 해를 기념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10월 4일 폐막 공연에 참가, 아크로스 클래식 페스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부산문화회관 중, 소극장 분장실 및 예술단 연습실 환경 개선공사 완료

개관 21년으로 노후된 부산문화회관 중, 소극장 분장실과 부산시립예술단 연습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실시된 환경 개선공사가 8월 30일 완공된다.

이번 공사는 공연예술인들을 위한 최상의 공연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난 6월 건설기술공모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업체의 작품을 선정, 7월과 8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곳은 공연 예술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극장 지하에 위치한 중극장 분장실 2곳과 소극장 1층에 위치한 소극장 남녀분장실 2곳, 대극장 지하 화장실 3곳과 교향악단을 비롯해 합창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단체연습실과 개인연습실 6곳 등이다.



중극장 분장실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 다자녀 가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관람료 50% 할인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 다자녀가족 우대 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족들에게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률을 종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그동안 다자녀 가족의 경우 공연입장료 할인이 현장 매표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9월 1일 티켓이 오픈되는 공연들은 예매 시에도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족은 예매 후 현장에서 공연 티켓 수령시 가족 사랑카드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티켓을 받을 수 있다.



## 찾아가는 예술단 9월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직접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9월 일정이 확정되었다. 9월에는 매주 수요일 12:30부터 열리는 시청 로비콘서트를 비롯해 민주공원, 사상구청 대강당 등에서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 ■ 9월 일정

- |               |  |                       |
|---------------|--|-----------------------|
| 9.03(목) 15:00 | 장애인축제공단 초청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br>-장애인축제공단 대강당(출연/시립극단) |                       |
| 9.09(수) 12:30 | 시립예술단 '로비콘서트'  | - 시청로비(출연/시립무용단)      |
| 9.12(토) 15:00 | '민주공원' 공연  | - 민주공원 야외무대(출연/시립무용단) |
| 9.23(수) 12:30 | 시립예술단 '로비콘서트'  | - 시청로비(출연/시립교향악단)     |
| 9.24(목) 14:00 | 사상구복지한마당   | - 사상구청 대강당(출연/시립교향악단) |
| 9.25(금) 19:30 | 북구마당춤판   | - 북구구민운동장(출연/시립무용단)   |

\*문의:부산문화회관(607-6045)



9월 로비콘서트 무대에 서는 부산시립무용단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제도가 9월 1일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로 바뀝니다

부산문화회관 자체 전산예매 시스템 가동으로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이제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립예술단 공연 좌석을 할인된 금액으로 자유롭게 선택,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구분** ※ 단체 가입은 30명 이상 가입 시 10% 할인됩니다.

구 분	특별회원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회 비	50,000원	30,000원	20,000원

### 변경내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명칭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으로 바뀝니다.
- 기존 공연 횟수 차감방식에서 할인제도로 전환됩니다.
  - ▷ 할 인 율 : 기획공연 5~30%, 예술단 공연 5~20%
  - ▷ 좌석선택 : 전체 좌석에서 선택가능
  - ▷ 관람횟수 : 제한 없음
  - ▷ 서 비 스 : 조기 예매 기회 제공, 문화 강좌 할인, 기존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등
- 회원 종류에 따라 공연 할인 매수가 달라집니다.
  - ▷ 특별 회원 : 4매 할인   ▷ 일반 회원 : 2매 할인   ▷ 청소년회원 : 1매 할인

### 회원혜택

- 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5~30%)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단체 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과 협의)
- 부산시내 전 공연장 정보를 담은 월간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무료 우송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응모
  - \* 테마여행 협찬사 (주)레임 여행 상품 5% 할인 제공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할인 쿠폰 발행(BS부산은행 조은극장, 필하모니,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IBK점프부산전용극장, 닥터큐 남천점 등)
  - \*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한 조기 예매 기회 제공
- 부산문화회관 문화강좌 할인

※ 기존 가입자는 정해진 공연 관람 후 잔여 회원 기간까지 공연 예매 시 신규회원들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예술단 공연 제외)

**정기회원 가입 및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ulture.busan.kr)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기차타고 떠난 청도여행



그 어느때 보다 설렌 마음으로 떠난 8월 테마여행지는 달콤한 복숭아 향으로 가득한 전통과 문화의 고장 '청도'이다. 특히 여름 방학을 맞아 기차를 타고 떠난 이번 여행은 바쁜 일상에 잊고 지내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8월 테마여행이 있던 지난 8월 14일, 이른 아침부터 집합장소인 부산역 광장 시계탑 앞으로 정기회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번 테마여행은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보다 두배나 많은 80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참석했다.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단 '골든브라스'가 동행하면서 달리는 기차에서 열릴 색다른 연주회에 그 어느때보다 회원가족들의 기대감은 높기만 했다.

오전 9시 10분, 무궁화호에 탑승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자리를 잡았다. 기차가 출발하면서 시작된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골든브라스'의 특별한 음악회. 청도에서 만나기로 한 윤상명(트럼펫), 조진혁(튜바) 씨를 제외한 황성렬(트럼펫), 전해상(트럼본), 이민정(혼), 예병현(드럼) 씨의 흥겨운 연주가 펼쳐졌다. 악기와 곡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함께 회원들도 직접 악기를 붙어보는 동안 어느새 기차는 청도역에 도착했다.

미리 마중나온 두 대의 버스에 옮겨 탄 회원들은 오전 일정에 따라 복숭아 따기 체험에 나섰다. 청도군민이 직접 운영하는 세 곳의 복숭아 농장에 도착한 회원들은 농장주인의 설명을 듣고 복숭아 따기에 나섰다. 행여 다른 나뭇가지가 꺾일세라 조심스레 복숭아 따

기 체험을 마친 회원들은 그늘진 복숭아 나무아래에서 직접 판 복숭아를 먹으며 한여름 무더위를 달래기도 했다.

복숭아따기 체험을 마친 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오후 일정지인 청도읍성으로 출발했다. 청도유적탐방에는 문화유산해설사 김성태 씨가 동행했다. 청도읍성은 지난해 발굴조사와 고문헌 고증을 거쳐 북문인 공북루를 중심으로 성벽과 옹성 등 성곽을 복원했다. 복원된 성벽에 올라 공북루까지 둘러본 회원들은 조선시대 청도군 객사로 쓰였던 '도주관(道州館)'을 거쳐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청도석빙고로 자리를 옮겼다. 한여름에도 얼음이 녹지않았던 석빙고의 과학적 원리에 회원들의 감탄이 절로 터져나왔다.

청도유적탐방 마지막 장소는 조선 초 절개로 이름높았던 탁영 김일손 선생을 기리기 위한 자계서원. 이 곳은 임금이 그 뜻을 기려 직접 이름을 지어 편액을 내린 사액서원으로, 사당인 존덕사(尊德祠)와 강당인 보인당(輔仁堂), 학생들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영귀루(詠歸樓),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숙식하는 생활공간인 동재와 서재가 자리하고 있어 조선 초기 역사와 건축을 둘러볼 수 있다. 또 한켠에는 탁영 김일손 선생이 손수 심었다는 수령 500년의 은행나무가 있어 탐방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운계였던 서원의 이름이 자계가 된데는 사연이 전해지는데요, 조선시대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로 김일손 선생이 목숨을 잃던

날, 그의 고향 앞을 흐르던 운계천이 피로 물들면서 이때부터 운계(雲溪)를 자계(紫溪)라 했다고 합니다.”

8월 테마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는 유호연지(柳湖蓮池)에 자리한 청담갤러리. 드라마 무대디자이너로 활동하다 퇴직한 김성락 관장이 운영하는 청담갤러리는 2곳의 전시실과 아트숍, 카페로 구성되어 있다. 2층 카페의 한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유호연지의 풍경을 즐길 수도 있다. 마침 방문한 날이 서양화가 김대연 씨와 도예가 박순관 씨의 작품전 개관일이라 회원들은 도예작품을 감상하며 모처럼 문화적 향취에 흠뻑 젖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금관 5중주 '골든브라스' 연주회 시간. 정기회원 가족은 물론 청담갤러리를 찾은 방문객까지 어느새 야외정원에는 관객들로 가득했다. 워싱턴 포스트 행진곡을 시작으로, 뉴욕 뉴욕, 라수스 트럼본, 성자의 행진, 캉캉 등 경쾌하면서도 흥겨운 선율이 관람객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한시간 가량 이어진 열정적인 연주는 세 번의 앙코르를 받고서야 겨우 아쉬움을 달래며 끝날 수 있었다.

5시 48분 부산행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 속에는 잊지못한 또 하나의 추억이 새겨졌다. (글, 사진/정복엽)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투어편

2009년 10월에는 별빛 추억 가득한 영천으로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9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9월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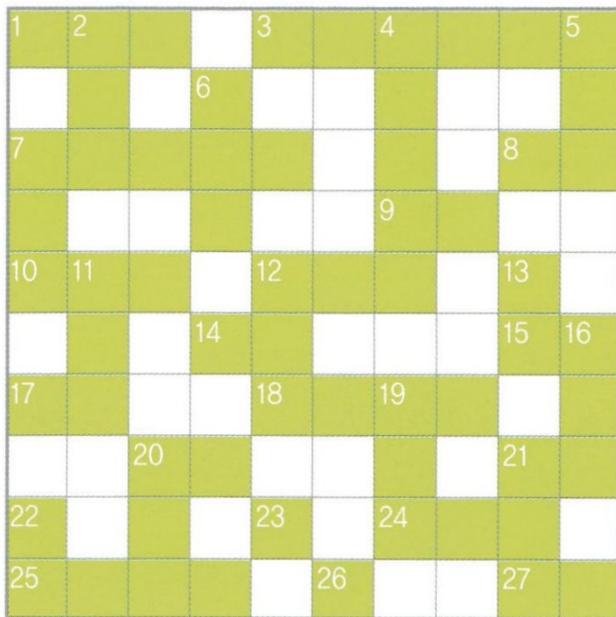
### 엽서당첨자

김백운(수영구 광안3동)  
송말남(연제구 거제1동)  
오창경(서구 서대신동3가)  
이경준(수영구 수영동)  
이봉주(남구 대연3동)  
장봉태(동구 범일1동)  
정기모(기장읍 대라리)  
정영호(금정구 서2동)  
최정숙(서구 부민동3가)  
최창식(남구 용호1동)

### 신규가입자

김길진(연제구 거제1동)  
김미소(북구 만덕1동)  
김은순(해운대구 중동)  
신정희(남구 문현동)  
이준양(해운대구 우1동)  
이현령(남구 용호1동)  
정재도(해운대구 재송1동)  
조희선(서구 서대신동3가)  
최정현(동구 초량4동)  
하미경(연제구 연산4동)





가로

1. 부산문화회관이 9월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 마련하는 라이브쇼 '하늘아래 그 콘서트' 첫 번째 출연가수.
3. 오는 11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랜만에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세계 최정상 첼리스트.
7. 영화감독 이창동의 감독 데뷔작으로, 도시재개발에 밀려 소외된 소시민의 삶과 퇴색해가는 가족의 의미를 그린 작품.
8.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현대화한 록뮤지컬.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뉴욕 이스트 빌리지를 배경으로 현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9. 복권이나 포커에서 계속해서 태우거나 당첨자가 없어 쌓인 거액의 돈. 또는 그런 돈을 따거나 받는 일.
10. 국보 제 1호 송례문의 다른 이름. 2008년 2월에 일어난 화재로 2층짜리 누각이 소실되었다.
12. 미국의 발명가. 전화기, 백열전등, 축음기, 영화촬영기 등을 발명해 발명왕이라 불린다.
14. 몽골고원 내부에 펼쳐진 사막. 몽골어로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란 뜻이다.
15. 고려시대 왕도였던 개성의 옛 이름.
17. 의자에 앉아 동체(胴體)를 무릎 사이에 끼고 활을 수평으로 하여 연주하는 저음 현악기.
18.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이 왕비 무타즈 마할을 추모하여 건축한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
20. 향악기에 속하는 칠현악기의 하나. 줄을 잡는 손의 위치와 줄을 당기는 강약에 따라 음높이가 정해진다.
21.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2003년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2004년 선댄스 영화제 표현의 자유상을 수상했다.
23. 민속음악에 쓰는 타악기의 하나. 채로 쳐서 소리를 내며, 음색이 부드럽고 장중하다.
24. 일정한 음악이 자동연주되는 음악 완구. 1770년경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 유행되어 담배케이스, 콤팩트, 인형상자 등에 이것을 장치했다.
25.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과 벌인 마지막 해전. 이순신 장군도 이때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26. 악성 베토벤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한때 서독의 임시수도였던 도시.
27. 사군자(四君子)의 하나.

세로

2. 조선 정조의 생모이자 사도세자의 빈이었던 혜경궁 홍씨가 지은 자전적 회고록. '인현왕후전'과 함께 궁중 문학의 쌍벽을 이룬다.
4. 지난 6월 25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팝의 황제.
5. 어린아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성인을 뜻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로 몸은 어른이지만 행동이나 취향은 어린아이같은 사람들을 뜻한다.
6.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아크로폴리스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이곳은 시민의 경제생활과 예술활동이 이루어졌던 장소이다.
7.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로 자신의 관심분야나 취미활동에는 적극적이거나 이성과의 연애에는 소극적인 남성을 일컫는다.
11. 서울에 있는 문화 예술의 거리. 혜화동에서 이화동에 이르는 길이 700미터의 거리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린다.
12.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었던 후안 페론과 그의 부인이었던 에바 페론이 권력을 잡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
13. 프랑스의 대중가요.
16.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시집 '접시꽃당신'의 시인.
19.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나 1999년 중국에 반환된 중국특별행정구. 동양의 라스베가스.
20. 한반도에 밀어닥친 쓰나미를 소재로 한 윤제균 감독, 설경구, 하지원 주연의 재난영화.
21. 사냥에 쓰이는 매.
22. 오광대놀이, 야유(野遊) 등에 등장하는 흉하게 생긴 괴물로 양반을 응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호 정답



퍼즐당첨자 명단

■ 큰집

- 김충남(부산진구 연지동)
- 민경애(서구 서대신동3가)
- 박순임(사하구 당리동)
- 배대식(사하구 당리동)
- 김은임(부산진구 개금동)

■ 공간 소극장

- 박은미(사상구 괘법동)
- 박자형(수영구 광안동)
- 이순희(사하구 당리동)
- 이한나(연제구 연산동)
- 이현영(영도구 봉래동)

■ BS부산은행조은극장

- 김민걸(수영구 광안동)
- 김보경(동래구 명장1동)
- 김수현(중구 중앙동)
- 안향비(금정구 장전1동)
- 이은정(북구 덕천1동)

■ 나랏소

- 서옥영(사하구 당리동)
- 이주미(금정구 구서동)
- 최명희(사상구 학장동)
- 최은기(부산진구 연지동)
- 하재범(부산진구 부전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최고급 부산만을 공급합니다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곱담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9년 9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이번 공연이 두 번째 관람인데 역시 즐거웠습니다. 귀에 익숙한 음악이지만 금난새 선생님의 해설로 더욱 친근하게 또한번 음악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딱딱하고 형식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작곡가와 연주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 최 재 원(서구 암남동)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한여름밤의 콘서트 '국악과 성악의 만남'

한여름밤의 콘서트라는 설레임을 주는 공연소식에 친구들의 모임을 앞당겨 보게되었다. 장사익님, 주현미님 그리고 마지막 모듬북연주에서 그들의 열정이 만들어 낸 공연에 손아프게 박수를 쳤다. 장사익님의 "늘 오늘같이만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평범한 메세지가 가슴에 잔잔히 새겨지는 공연이었다.

- 안 윤 주(북구 만덕동)

###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가지 소묘'

부산에서 몇 년 전부터 했던 공연이었다.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이제야 보게된 공연! "우아... 이런 공연이 있구나" 하며 지금까지 본 공연 중 단연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다. 공연 보는 동안 배를 잡고 웃었고, 또 다른 테마에서는 눈물 콧물 질질 짜며 보았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몰아부치는 웃음. 휴지로는 눈물을 닦지만, 나도 모르게 소리내며 웃고있는 내 모습을 보게될 것이다. 너무나도 완벽한 배우분들에게 기꺼이 최고라고, 박수쳐드리고 싶다.

- 김 현 주(영도구 봉래동3가)

### 연극 '그남자 그여자'

라디오가 원작이라 그런지 남과 여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말하다' 라는 말처럼, 상대방이 몰라주는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처럼...그 말에 공감하게 되었다. 사랑에 관한 남과 여의 마음을 순수하고 감성적인 공감대로 다가선 것 같다. 사랑에 빠진 혹은 사랑을 했던 누군가가 본다면 무조건 공감할 작품이라 생각한다.

- 김 현 영(서구 서대신동2가)

### 연극 '달라진 저승'

연극을 보러가자는 어머니 요청에 선택한 연극 '달라진 저승'. 이 작품은 다른 연극과는 달리 관객과 소통하며 대화하고 중간중간 공연이 현실이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조명이 독특한 연극이었다. 처음 연극을 관람한 어머니의 소감 역시 '특이하다' 였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관람한 첫 연극, 잊지못할 것 같다.

- 이 현 영(영도구 봉래동4가)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공장 전문점

나랏소랑?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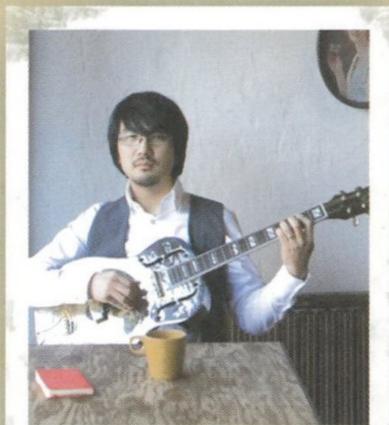
**방 법** [bsculture@naver.com](mailto: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도시적 삶의 코드 우리들만의 아지트가 생긴다.

# 하늘이 노래 그 콘서트



이한철 9.11 (금)



노리플라이 10.16 (금)



심현보 11.13 (금)



이지형 12.11 (금)



킹스톤루디스카  
2010.1.15 (금)



서재명밴드  
2010.2.19 (금)



소규모이카니이밴드  
2010.3.19 (금)



오지은  
2010.4.16 (금)



이상은  
2010.5.14 (금)

※이 공연은 출연진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우리만의 흥미진진한 라이브쇼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며 살아가는 도시남녀들과 인생의 터닝포인트 앞에 선 그들의 풍경을 음악으로 그려낸다.

일시 | 2009. 9. 11 (금) ~ 2010. 8. 13 (금)

장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예매 | ticketlink<sup>h</sup> 티켓링크 1588-7890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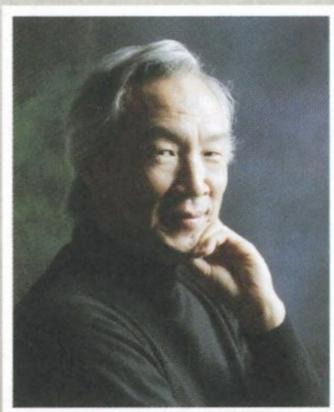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52회 정기연주회

# 멘델스존 탄생

## 200주년 기념 음악회 II



지휘  
각 승



바이올린  
신상준



펠릭스 멘델스존  
(1809~1847)  
Felix Mendelsso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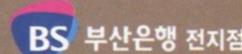
멘델스존  
'한 여름밤의 꿈' 서곡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09. **9.11**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607-3111~4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0 (홍보마케팅부) www.bsculture.busan.kr  
예매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부산문화회관 21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행비 5% 할인받으세요!!

본 혜택은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하실 때 적용됩니다.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 계절추천 온천여행

뭐니뭐니해도 가을에는 온천여행



온천의 원조  
코비 북큐슈 온천 3일

JKP721

399,000원~



이색 온천 순례  
난키/화카야마/시라하마/미에

JOP540

1,0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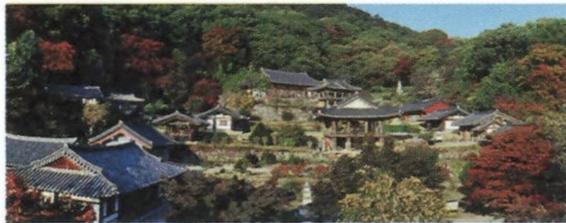
부산출발  
나고야/쿠로베협곡/알펜루트

JAP701

1,299,000원~

### 강력추천 가족여행

대한민국의 명소로 가족 나들이



[당일여행] 부산출발  
영주부석사 + 청량사

AKFK36

14,000원~



체험상품  
부석사 + 소수서원 & 선비촌

AKFK13

45,000원



대바람 소리  
담양죽녹원 + 강천산트레킹

AKPK08

40,000원

### 3대절경 중국여행

가을에 가야 하는 중국의 3대 절경!!



남성추천  
상해/항주/황산 5일

CCP755

479,000원~



민족의  
심양/백두산 4일

CNP767

649,000원~



여성추천  
상해/(항주or소주)/장가계 5일

CCP752

769,000원~

### 늦은물놀이 3총사

부담 없이 직항 가족 물놀이 여행!!



관광형  
방콕/파타야 4일, 5일

AAP701

399,000원~



부산직항  
세부 4일, 5일

APP754

599,000원~



일급호텔  
사이판 <리베라>

PSP708

699,000원~

Hi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 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5%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김수현 직통전화 070-8270-2579 / 박상헌 직통전화 070-8270-7774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www.hihana.co.kr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9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아미띠에 콰르텟(Amitié Quartet)



밍글 콰르텟(Mingle Quartet)



부산 영 콰르텟(Busan Young Quartet)



클레마티스 듀오(Clematis Duo)

### ▣ 프로그램

드보르작/현악4중주 제12번 바장조 작품96 '아메리카'...부산 영 콰르텟  
모차르트/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2중주 제1번 사장조 작품 423...  
클레마티스 콰르텟

하이든/현악4중주 다장조 작품76 제3번 '황제'...밍글 콰르텟  
비발디/네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나단조 작품58

### ▣ 출연

#### ▶ 아미띠에 콰르텟(Amitié Quartet)

Violin1. 김지윤(부산대 4년), Violin2. 김수현(동아대 4년)  
Violin3. 양예지(동아대 4년), Violin4. 이정림(부산대 3년)  
※ Piano. 김유미(동아대 대학원 재학)

#### ▶ 밅글 콰르텟(Mingle Quartet)

Violin1. 이 준(인제대 4년), Violin2. 박완서(경성대 4년)  
Viola. 백나경(부산대 2년), Cello. 정혜주(부산대 2년)

#### ▶ 부산 영 콰르텟(Busan Young Quartet)

Violin1. 박정은(부산예고 2년), Violin2. 한초롬(부산예고 2년)  
Viola. 김랑하(부산예고 2년), Cello. 정혜주(부산대 2년)

#### ▶ 클레마티스 듀오(Clematis Duo)

Violin. 탁서연(부산대 4년), Viola. 정희경(부산대 3년)

※ 해설 / 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탱고춤이 있는 앙상블 뮤젠

국악과 양악을 접목시킨 앙상블 단  
체 뮤젠은 2005년 바이올린 이장  
호(리더), 피아노 김민선, 해금 윤  
해승, 첼로 박현영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2005년 결성 후 금정수요음악회,  
부산문화회관 정기연주회, 찾아가  
는 음악회 등을 통해 부산 실내악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일으키고  
있다.



### ▣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피아노 트리오  
피아졸라/oblivion '망각'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중 [여름], [가을]  
안정현/해금 탱고를 위한 Dance of Moonlight

※탱고 초청 / 다음카페 뿌에르토 탱고 김무석, 반미성

## 9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앙상블 디마레 연주회

잔잔한 바다의 화음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 13명의 현악주자들  
로 구성된 앙상블 디 마레의 연주회.

### ▣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바장조 '잘츠  
부르크 교향곡 제3번' 작품 138

차이코프스키/안단테 칸타빌레  
라장조(현악4중주 제1번  
2악장 편곡)

그리그/홀베르그 모음곡(홀베르그의 시  
대) 작품 40

### ▣ 출연

Violin I. 이은옥, 권남희, 김영주, 민정화

Violin II. 조양희, 강선덕, 최은정

Viola. 홍영선, 김상철, 신지현

Cello. 김근아, 서송은

Double bass. 박정숙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 2009년 10월 9일(금) 별빛 추억 가득한 영천 가을 여행

‘별의 수도’ ‘별의 도시’ 영천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영천 유일의 국보인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을 시작으로 폐교에서 아름다운 미술 휴식공간으로 변신한 시안미술관, 영천의 자랑 별빛 포도 수확 체험으로 가을 여행을 즐긴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09:30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답사
- ▷ 12:00 시안미술관 도착, 점심식사 및 전시관람
- ▷ 14: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5:30 보현산 별빛 포도마을, 머루포도 따기 체험
- ▷ 16:30 부산으로 출발



## ▶ 2009년 11월 13일(금) 함안 아라가야 역사기행

6 가야의 맹주국으로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함안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아라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함안의 주요 유적지답사, 가을빛으로 물든 여산팔경마을 농촌 체험으로 가을을 만끽해 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함안 도착, 고려동유적지, 대산리 석불, 무진정 등 답사
- ▷ 12:30 여산팔경마을 도착, 점심식사
- ▷ 13:30 여산팔경마을 탐방, 농촌 체험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전화번호 변경 ※변경일시 : 2009. 6. 26(금)

###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실 607-3110  
사무실 607-3111  
연습실 607-3116  
악보실 607-3117

### 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실 607-3120  
사무실 607-3121  
연습실 607-3126  
악장실 607-3127  
사물놀이실 607-3128

### 시립무용단

안무자실 607-3130  
사무실 607-3131  
연습실 607-3136  
소품실 607-3137

### 시립합창단

지휘자실 607-3140  
사무실 607-3141  
연습실 607-3146

### 시립극단

연출자실 607-3150  
사무실 607-3151  
연습실 607-3156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실 607-3160  
사무실 607-3161  
연습실 607-3166

###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실 607-3170  
사무실 607-3171

### 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el 607-3100  
FAX 607-3109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한밤의 세레나데

10% 할인



2009. 9. 3(목)~10. 4(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10/2일 오후 3:00, 10/3일,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4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 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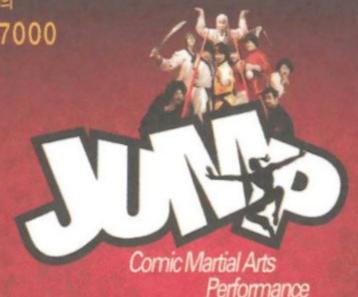
▶ 날짜 : 2009. 1. 1(목)~12. 31(목)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810-7000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50,000원(R석) / 40,000원(S석)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매회 전석 매진의 신화 **유키 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Romance*

2009.11.24 | 화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예 매 : ticketlink<sup>h</sup>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 ▲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 2010 상반기 부산문화회관 대관안내

대 상 극장(대·중·소), 전시실(대·중)

대관내용 ○ 대관기간

▷ 대극장 : 2010년 1월 ~ 3월[3개월간]

※ 대극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대관 불가기간 : 4월~9월[6개월간]

▷ 극장(중·소), 전시실 : 2010년 1월 ~ 6월[6개월간]

※ 무대보수 및 정비로 인한 대관 불가기간 : 1월 4일(월)~6일(수)

○ 접수기간 : 2009. 9. 17(목) ~ 9. 30(수)[10일간]

- 접수시간 : 월~금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전시 우선 → 대중 예술공연 제한적 허용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전시

○ 종합예술공연 진흥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 소규모 연주회는 소극장으로 대관안내, 대·중극장 편중지양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아니하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후 30일 이내 납부, 계약체결

○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내 사용료 미납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운영담당 ☎607-60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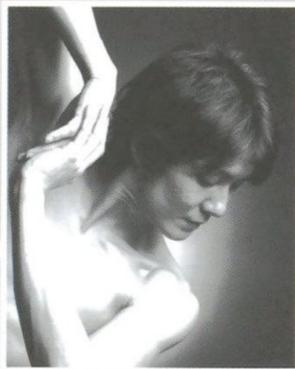
# 유니버설발레단

# 돈키호테

정제된 우듬지와 화려한 무대, 뛰어난 테크닉이 향연!  
걸음 채프닝을 둘러싼 스페인풍이 유쾌한 희극 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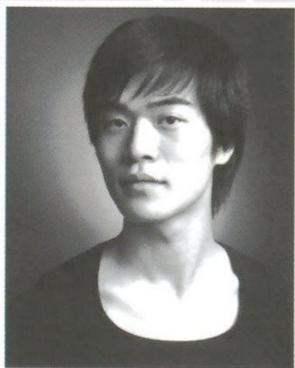
황혜민(10월 9일)



엄재용(10월 9일)



강예나(10월 10일)



이현준(10월 10일)

※ 본 캐스팅은 유니버설발레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돈키호테

★ 본 공연 30분전 객석에서  
'문훈숙 단장의 돈키호테 감상법' 과 함께 하세요

★ 이해를 돕기 위해 본 공연 중  
장면에 대한 **자막 해설**이 제공됩니다.

2009. 10.9(금) 19:30 ~ 10.10(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회관, 국제신문 주관 | 부산문화회관, 유니버설발레단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티켓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예매 | ticketlink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8